

「生活의 質」의 測定에 關한 研究

玄 昨 錫

〈要 約〉

現代人은 누구나 뚜렷한 삶의 目的, 價値觀 및 人間性에 基礎를 둔 同化意識을 追求하고 있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物質中心主義는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기는 커녕 環境破壞와 人間性的 喪失만을 안겨 주었다.

이에 따라 1960年代 부터 1970年代에 걸쳐 人間의 關心이 生活의 量的 側面에서 質的 側面으로 移轉되고 있고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의 改善만이 經濟社行 政策의 最高 目標가 되고 있다.

本 論文에서 이리한 「生活의 質」의 內容을 明確히 하고 「生活의 質」理論形成을 爲해 一般體系論(general system theory)을 援用, 生活 現象을 「發見的 모델 heuristic model)로서 分析하고 質的 生活의 再生産方式을 展開하여 보았다.

한편 이리한 「生活의 質」의 分析結果를 土臺로 새로운 福祉 測定 指標인 「生活의 質」 指標(Quality of Life Indicators: QLI)의 試案을 提示하여 이를 우리나라 國民生活에 適用, 過去 10年 동안의 時系列分析을 하였다.

GNP에 代身한 QLI는 所得資產水準指標, 生活安定指標, 分配公正指標, 人命尊重度指標, 人間環境指標, 生活充足感指標 등의 6大 指標로 區分되고 各 指標는 ①個의 個別指標로 細分한 후 다시 이를 綜合하여 그 改善여부를 說明 示하였다.

時系列分析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國民生活 水準은 全般的으로 量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質

的인 側面에서도 向上되고 있으나 그 速度가 所得水準의 向上에는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國民의 福祉狀態를 보다 正確히 把握할 QLI의 開發이 國民生活의 眞正한 發展段階를 理解하는 데 뿐만 아니라 政策樹立 및 評價에는 絶對的으로 必要되리라 아울러 政府는 「生活의 質」 向上에 보다 많은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第一章 序 論

第一節 研究目的

1960年代부터 1970年代에 걸쳐 人間의 欲求體系와 價値體系에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人間의 關心이 生活의 量的 側面에서 質的 側面으로 移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60年代가 經濟成長을 中心으로 하는 「GNP 時代」라던 70年代는 物質의 充足을 넘어서 精神의 充實과 人間의 價値를 追求하는 「脫 GNP 時代」라 하겠다.

J.K. Galbraith의 主張과 같이⁽¹⁾ 經濟成長의 良否는 얼마나 生産하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의 生活이 견딜만한가 또는 生活에 즐거움을 가져오기 爲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의하여 判斷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一般的으로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이라고 呼稱되는 改善만이 最高의 目標가 되었다.

人間의 欲求體系와 價値體系가 變化하면 政府의

* 筆者는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6期 卒業生이다.

(1) J.K. Galbraith, *Economics, Peace and Laughter* (New York: American Library, Inc., 1972), pp. 15-31.

經濟社會政策과 企業行動에도 變化가 要請됨은 國民主權과 消費者主權(consumer's sovereignty)의 世界에서 當然한 일이다. 그런데 從前의 物質的 進步를 가리키는 GNP는 生産高의 尺度는 될지언정 欲求充足, 내지 福祉의 尺度는 되지 못한다. 여기에 經濟社會政策 및 企業行動의 指針이 되고 社會發展과 人間의 進步를 나타내는 새로운 指標가 必要하게 되었다. 이것이 「生活의 質」 指標(Quality of Life Indicators) 또는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로 通稱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指標를 通한 「生活의 質」의 高度化는 새로운 國家指標로서, 經濟活動의 最終目標로서, 行動의 最大 課題로서 또는 國家 내지 地域計劃의 最終 評價基準으로서 確固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本 論文은 바로 이러한 「生活의 質」의 內容을 明確히하고 具體化함으로써 國民生活에 方向을 提示하여 보람 있는 삶을 누리는 밝은 社會建設의 基礎를 提供함은 그 研究目的으로 삼고 있다.

第二節 研究對象 및 方法

「生活의 質」研究의 對象은 人間生活이다. 人間生活은 最: 個人, 組織, 環境등의 세가지 側面에서 分析上 必要가 있다.

이와같이 綜合的인 分析을 通해 人間生活의 一般理論이라고 할 수 있는 生活理論이 導出될 수 있다. 그러나 本論文에서는 이러한 여러 變數를 綜合적으로 論討하지는 못하고, 「生活의 質」을 量的으로 表現하는데 焦點을 두어 우선 個人的 幸福에 對해 心理學 考察을 하고 다시 이 心理的 mechanism이 個人, 小集團 또는 大規模組織안에서 어떻게 作用하는가에 對해서 假說的인 分析 model을 提示해 보았고, 끝으로 우리나라 國民生活의 質의 變遷을 利用 가능한 統計資料에 立脚하여 分析하였다.

研究方法으로는 行態論的 接近方法을 使用하여 個人的 幸福 要素를 分析함으로써 「生活의 質」의 心理的 側面을 살펴보고, 이어서 生活을 하나의 體系(system)로 보고 體系分析을 通해 生活의 定義와 構成要素 및 經驗的 指標의 設定을 試圖해

보았다.

끝으로 이렇게 作成된 「生活의 質」 指標(Quality of Life Indicators: QLI)를 우리나라 國民生活에 適用하여 그 改善여부와 程度를 實證的으로 分析하였다.

第二章 「生活의 質」의 心理的 側面

第一節 「生活의 質」의 概念

「生活의 質」을 定義하는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生活의 質」의 要素를 分析하는 것이다. 「生活의 質」은 두가지 側面을 지니고 있는데⁽²⁾ 하나는 「最高(aristie)」라는 側面이고 다른 하나는 「快樂(hedonic)」의 側面이다. 前者는 quality라는 單語가 暗示하듯이 優越感과 關係가 있고 後者는 一般的인 滿足感 特別 幸福과 關係가 있다. 그러나 「生活의 質」의 優越感과 關聯된 側面은 社會全體的인 評價基準의 存在와 客觀性, 妥當性등 어려운 問題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幸福指向的(happiness-oriented) 側面을 中心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第二節 幸福의 要素

우리가 人間の 幸福을 論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 問題를 取扱하여야 한다.⁽³⁾ (1) 一般的 幸福要素(consensus happiness requisites), (2) 個人的 幸福要素(idiosyncratic happiness factors) (3) 充滿感(hedonic mood)

一般的 幸福要素는 사람들이 一般的으로 認定하고 있는 幸福要素로 幸福의 人間交互의 分野이다. 財產狀態, 物的, 社會的, 政治的 環境의 質, 地位, 尊敬, 職務滿足, 自由, 餘暇의 活用등이 여기에 包含된다.

個人的 幸福要素는 個人的 欲求와 期待에 따라 差異가 있다. 즉 이것은 各個人이 幸福을 가지다 允다고 생각되는 要素와 이들 要素의 所有程度에 對한 自身の 評價에 依存한다.

充滿感은 知的理解(intellectual apprehension)보

(2) Nicholas Rescher, *Welfare: 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2) pp. 61-62.

(3) *Ibid.*, pp. 62-64.

다는 感情(feeling)과 關聯된 것으로 各 個人이 그때 그때의 狀況에서 느끼는 滿足(euphoria), 不滿(dysphoria) 등의 心理的 狀態를 말한다. 이것은 短期的, 一時의 滿足感으로 어떠한 手段——술이나 麻藥으로도——을 通하여도 可能하다.

第三節 一般的 幸福要素

「生活의 質」이라는 社會的 次元에서 幸福을 取扱함에 中心되던 것은 一般的 幸福要素이다. 다시 말해 幸福의 要素中 「生活의 質」이라는 社會政策的 側面에서 論議되는 것은 一般的 幸福要素 뿐이다. 왜냐하면 社會開發計劃과 公共政策의 標準으로서 「生活의 質」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은 個性的, 主觀的 要素보다는 人間 交互的 要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關心은 各 個人的 個性이라는 原子的, 微視的 水準을 떠나 一般의 生活風土(climate of life)라는 分子的, 巨視的 水準에 두어야 한다.

一般的 幸福要素를 列擧해 보면⁽⁴⁾ 다음과 같다.

1. 個人的 幸福

- (1) 健康 (2) 富, 繁榮 (3) 安全 (4) 自尊心
- (5) 自己開發, 教育 (6) 地位, 出世

2. 對人關係에서 充足되는 滿足感

가. 相互性

- (1) 家族關係 (2) 愛情 (3) 性的 滿足
- (4) 友情, 同一感
- 나. 自己指向
- (1) 自己表現 (2) 餘暇 (3) 趣味, 娛樂
- 다. 他人指向
- (1) 社會的 認定 (2) 他人에 對한 社會的 關心
- (3) 他人에 對한 積極的 影響力(leadership, 權力)

3. 環境的 要素

(4) Nicholas Rescher, *Welfare: 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2) pp. 69-71.

(5) *Ibid.*, pp. 71-72.

(6) *Ibid.*

(7) 社會指標에 關한 論議는 Eisenhower 行政府의 「國家目標을 爲한 大統領委員會」에서 本格化되었다고 한다. *Report of President's Commission on National Goals, Goals for American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0)

(8) 國際聯合 社會開發研究所는 營養, 住居, 保健, 教育, 餘暇, 安全, 其他 등의 일곱가지 目標을 提示하고 있다.

Jan Dr.ownowski and Scott Wolff, *The Level of Living Index*,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4 (Geneva, 1966)

- (1) 自由, 權利 (2) 個性과 道德的 價值的 尊重
- (3) 平等과 社會的 價值的 認定 (4) 私生活의 秘密保障 (5) 美的 環境의 造成 (6) 自然環境의 保存

第四節 社會的 操作可能性과 社會指標

古典的 自由民主主義의 傳統은 個人生活에 對한 國家의 直接的 介入을 許用하지 않는다. 國家가 個人生活의 質을 向上시키기 爲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與件을 造成해 주는 것 뿐이다. 따라서 一般的 幸福要素 가운데 社會的으로 操作이 可能한 (socially actionable) 要素 만이 社會開發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⁵⁾

따라서 一般的 幸福要素中 社會的으로 操作可態한 (socially actionable) 要素만이 社會政策의 見地에서 「生活의 質」의 研究對象이 되며 이를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⁶⁾

1. 健康 2. 繁榮과 經濟的 安定 3. 個人的 社會的地位와 安全 4. 餘暇 5. 教育, 訓練, 自己開發
6. 個人的 自由와 機會保障 7. 政治的 自由 8. 平等 9. 權利, 正義, 適法節次 10. 私生活, 秘密保障 11. 美的 環境의 造成 12. 自然環境의 保存

「生活의 質」의 이러한 制限된 領域은 社會指標 (social indicators)와 表裏의 關係에 있다. 社會指標는 社會的으로 操作이 可能한 一般的 幸福要素를 實現하기 爲한 社會政策의 評價尺度이다.

社會指標의 體系化⁽⁷⁾를 爲해서는 우선 社會目標⁽⁸⁾의 體系化가 必要하다 그런데 「生活의 質」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社會目標는 결국 社會的 操作이 可能한 一般的 幸福開素의 達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列擧한 社會的 操作이 可能한 一般的 幸福要素에 對하여 多數의 社會指標가 作成되고 이를 통해 「生活의 質」의 測定이 可能하게 된다.

第三章 生活體系와 「生活의 質」

第一節 生活研究的 課題

「生活의 質」의 깊이있는 分析을 爲해서는 心理的 mechanism이 個人, 小集團 또는 大規模組織 안에서 如何히 作用하는가를 考察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生活의 質」과 關聯하여 生活分析이 必要하다.

(1) 生活體系 model의 設定

여기서는 우선 「生活」을 定義하고 內部構成要素를 明確히 하고 境界(boundary)를 設定하고 內部要因과 外部要因을 區別하고 外部에서 生活體系로 流入되는 投入(inputs)과 外部로 放出되는 產出(outputs)을 確認하는 것이 主要한 作業이다.

(2) 生活體系的 成長發展의 定義와

經驗的 指標의 設定

우리는 「生活의 質」의 問題가 主觀的인 滿足感, 生活意欲, 生活目標 등 生活意識의 複合體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主觀的 側面을 包含한 指標를 生活體系的 分析 model에서 演繹的으로 導出해낼 수 있다면 여러가지로 有益할 것이다. 아울러 그 指標속에는 構造指標와 成果指標, 短期指標, 長期指標, 環境指標 등도 包含시켜 體理化된 指標를 創出해내야 할 것이다.

(3) 生活體系的 成長, 發展過程과 mechanism

우리는 生活의 成長과 發展을 爲해 生活體系가 外部에서 어떠한 投入(inputs)을 받아들여 그 內部的 構成要素를 어떠한 順序로 어떻게 變化시켜 나간 것인가를 明白히 할 必要가 있다. 다시 말해 어떠한 構成要素가 先導하고(lead), 어니까지가 追從하며(follow), 또 어느 部分이 遲滯될(lag) 것인가하는 假說的 繼起關係(hypothetical sequence of change)를 提示하여야 한다.

(4) 生活體系的 類型論(typology)

生活體系에 對해 一元的이며 單一한 model을 構

想하고 單一方向에서 生活의 發展, 擴大를 想定하는 것보다 體系의 多樣性을 考慮한 分析이 妥當性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生活類型的 構成基準이 問題되며 生活體系的 基本的 因子 發見이 重要하다.

(5) 生活體系와 環境의 相互作用

生活體系는 環境속에서 存續하고 環境과 投入產出(input-output)의 相互交換을 繼續하는 開放體系(open system)이다.⁽⁹⁾

그러나 環境 一般을 問題삼지는 않고 生活體系的 形成, 維持, 發展에 있어 特別히 重要한 影響을 끼치는 外的要因은 明細化하고 特定化하여 그들 相互關係를 定式化할 必要가 있다. 예를 들어 企業, 地域社會, 政府 등이 重要한 影響力으로서 分析된다. 生活問題를 科學的으로 處理하고 生活理論을 構築하기 爲해서 적어도 上述한 다섯가지의 課題를 解決하여야 한다. 그러나 本論文은 「生活의 質」의 測定이 中心 theme이므로 처음 두가지 課題를 一般體系論(general system theory)의 立場에서 分析하기로 한다.

第二節 生活體系的 分析model

1. 發見的 model과 一般體系論

生活問題는 누구나가 날마다 實際로 體驗하고 있기 때문에 自明하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한 客觀的이며 科學的인 分析이 困難한 領域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一見 自明한 現象을 對象으로 할 때는 分析者 自身の 明確한 「認知의 地圖(cognitive map)」가 不可缺하다. 分析者가 지니는 「認知의 地圖」는 分析의 境界를 設定하고 關聯된 事象을 選擇하고 그 相對的 重要도를 決定하고 資料 相互間의 關係를 展望하는 根據가 된다는 意味에서 「發見的 索出的 모델(heuristic model)」이라고 불리워진다.

生活現象分析을 爲한 發見的 model로서 여기서는 一般體系論(general system theory)⁽¹⁰⁾을 援用하기로 한다.

(9) James. G. Miller, "Living Systems: Basic Concepts," *Behavioral Science*, July 1965 p. 195.

(10) 「一般體系論」이라는 말과 그 基本的인 概念은 理論物理學者인 Ludwig von Bertalanffy에 의해 이루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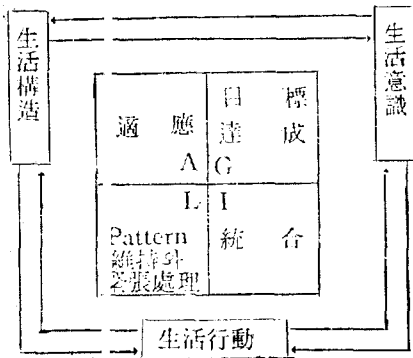
Kenneth E. Boulding, *Beyond Economics: Essays on Society, Religion and Eth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8), p. 83.

여기서 소개하는 一般體系論의 基本的 考察方法은 經驗的으로 充分히 檢證된 理論體系를 意味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는 이 發見의 model을 基礎로 하여 ① 生活에 對한 分析單位를 明白히 하고 ② 生活現象 가운데 比較的 規則的인 構造關係를 想定하고 ③ 比較的 恒常性⁽¹¹⁾(homeostesis)을 保存하고 있는 生活構造의 機能的 mechanism에 對하여 檢證 可能한 假說을 設定하고 ④ 그 構造의 變動過程에 對히 定式化를 試圖하며, ⑤ 分析의 目的에 適合한 data의 類型(type)을 指定하고 ⑥ 다시 그들 data를 收集, 集計하는 方法을 摸索하려 한다.

2. 生活體系的 構成

가. 生活體系的 定義

生活體系는 生産主體가 어떤 價値나 目標의 成就 또는 生命과 生活 그 自體의 再生産을 目標로 하는 過程에서 創造되며 4個의 機能的 領域(適應, 目標達成, 統合, pattern 維持와 緊張處理)과 3個의 構成次元(生活構造, 生活意識, 生活行動)間的 相互依存的인 下位體系(sub-system)로 이루어진 複合體이며, 周期的으로 反復되는 安全性을 지니고, 日, 週, 月, 年 또는 一生을 通하여 순화되어



〈圖 1〉 生活體系的 機能領域과 構成次元

나타나는 均衡持續의 傾向을 가지고 있다⁽¹²⁾. 生活體系的 定義에 나타난 機能的 領域과 構成次元을 配合하여 圖示하면 〈圖 1〉과 같다.

나. 生活體系的 機能的 領域

여기서 제시하는 生活體系的 機能的 領域은 Talcott Parsons의 機能的 要件에 全面的으로 依存하고 있다. Talcott Parsons는 「體系內的 모든 過程은 4個의 機能的 命令(functional imperatives)에 따르고 이는 體系的 均衡 또는 體系的 持續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充足되지 않으면 안된다⁽¹³⁾」고 主張한다.

따라서 生活體系的 形成, 維持를 爲해서도, ① 環境에의 適應(Adaptation) ② 目標의 決定과 達成(Goal-Attainment) ③ 統合의 形成과 維持(Integration) ④ 潛在的 pattern의 維持와 緊張의 處理(Latent pattern maintenance and tension management) 등 4個의 機能的 緊急事態(functional exigencies)가 日, 週, 月, 年을 通하여 解決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것들은 具體的으로 다음 4個의 問題를 意味하고 있다.

첫째, 「適應」의 問題는 生活基盤의 開發로 所得의 確保, 生活資源의 入手, 偶發的 事態의 對備등을 包含한다.

둘째, 「目標達成」은 生活目標開發로 生活目標과 그 下位目標의 設定, 目標達成을 爲한 資源의 配合, 各自의 生活樣式을 特徵지우는 生活資源 組合 目錄(所謂 標準 package)의 作成, 目標達成을 爲한 意思決定등을 包含한다.

셋째, 「pattern 維持와 緊張의 處理」에서는 兒童과 새로운 構成員의 育成, 訓練馴化나 生活資源이 體系類型에 適合하도록 修正, 加工하는 作用, 其他 同一性을 保持하려는 「pattern 維持」機能과 그밖 에 娛樂, 趣味, 餘暇活動 등의 「緊張處理機能」을 包

(11) 體系가 새로운 均衡狀態의 位置로 움직여 갈 때에 모든 變數의 값이 반드시 變하지는 않는다. 相互關係의 性質上 母數值(patterns)의 한 두개가 永久的 變化를 일으키는데도 不拘하고 變數中의 어떤 것은 一時的으로 攪亂되었다가도 처음의 크기로 還元될 수 있다. 이런 條件을 일컬어 恒常性(homeostesis)이라 하며 이것은 有機體가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性質이다.

Everett, E. Hage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Cambridge: M.I.T. press, 1963)
金環東譯, 經濟社會學 (서울: 乙酉文化社, 1965), pp. 761-772.

(12) 井關利明, 「生活システム」의 成長 發展とその指標, 丸尾直美, 村田昭治(編) 福祉生活의 指標를 求めて (東京: 有斐閣, 1972), pp. 60-61.

(13) Talcott Parsons and Neil J. Smels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Inc., 1964), p. 16.

함하고 있다.

다. 生活體系의 構成次元

生活體系는 3個의 構成次元을 가지고 있다. 즉 生活體系의 定義에서 提示된 바와 같이 「生活構造」 「生活意識」, 「生活行動」등이 그것이다. 「生活構造」는 生活體系의 短期的 變動에 對해 獨立의이고 反復生成하는 比較的 安定的이며 客觀的으로 觀察 가능한 諸要因의 pattern을 意味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生活構造」는 生活體系의 stock側面과 거의 一致한다. 다시말해 財貨 및 資産의 保有 pattern은 生活體系로 投入된 物質의 stock이며, 衣食住의 生活習慣은 學習(learning)을 통해 蓄積된 行動 pattern의 stock이라고 볼 수 있다.

「生活意識」은 生活主體가 客觀的, 實在的인 生活環境에 對해 지니고 있는 主觀的인 知覺(perception)과 認知(cognition)를 中心으로 價值觀, 生活目標, 準據틀(reference framework), 消費, 購買意識 등 心理的 要素의 複合體이다. 다시말해 「生活意識」은 外界와 自身에 對한 認知的 側面, 價值觀과 態度의 形成, 變容에 關한 學習의 側面, 그것들을 包含한 情報과 image등을 包含한다.

「生活行動」은 生活主體가 顯示한 成果로 「生活意識」에 의해 方向이 設定되고 統制되며, 「生活構

造」에 의해 條件이 賦與되고 制約받는다.

「生活行動」은 반드시 「生活意識」이나 「生活構造」에 同調(conform)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一時的인 不一致(incongruence)가 아닌 逸脫(deviance)이 繼續되는 경우에 도리어 「生活行動」이 「生活構造」나 「生活意識」의 修正을 強要하여 보다 높은次元에서 均衡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가지 構成次元의 相互 依存關係를 통해 「生活構造」와 「生活意識」의 持續과 變化에서 「生活行動」을 豫測할 수 있는 것이다.

라. 境界過程과 內部過程

生活體系는 다른 體系와의 相互境界(boundary process)을 通하여 廣義의 生活資源⁽¹⁴⁾을 投入(input)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配分(allocating) 修正(modifying), 加工(processing) 變換(converting)이라는 內部過程⁽¹⁵⁾을 통해 그 一部를 生活體系內部에 貯藏하고 나머지는 外部에 產出(output)로서 放出한다. 다시 말해 生活體系는 personality level에서 要求(needs)나 欲求(want)등을 energy로서 投入하여 情報機能을 지닌 「生活意識」의 統制와 方向設定에 따라 「生活構造」라는 比較的 固定된 mechanism을 通하여 「生活行動」을 產出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生活意識」은 부단히 새로

<表 1> 生活體系의 要因과 指標

	生活構造	生活意識	生活行動
適應	稼得形態, 貯蓄과 消費의 水準, 生活空間 構成, 生活時間 構成, 健康, 衛生水準	生活環境 image, 消費·購買意識, 危險感, 不安, 不滿, pattern職業, 勤勞意識, 期待와 展望	職業, 活動, 消費·購買行動 生活資源과 情報의 探索, 生理的 欲求充足 行動, 家事活動
目標達成	生活行事, 衣食住의 生活習慣 財貨 및 資産保有 pattern 家計支出 pattern	價值觀, 生活目標設計, 期待水準, 生活向上意欲 達成感和 滿足感	資源配分 行動, 意思決定 行動 目標設定과 達成 生活행사의 遂行
統合	社會, 集團關係 pattern 世帶內 役割構造 社會의 威信	階層歸屬 意識 集團準據 役割意識	役割 行動 集團 行動, 地域社會 活動 團體의 調整 統合行動
pattern 維持와 緊張處理	mass-media接觸 pattern 趣味·娛樂 pattern	餘暇意識 教育觀	餘暇活動 文化, 教育活動 趣味活動, pattern 維持活動

[資料] 井關利明, 前掲論文, p. 70에서 作成

(14) 財貨와 service뿐만 아니라 社會的 文化的인 것도 모두 包含한 概念이다.

(15) 주로 4個의 機能的 問題를 解決하는 過程이다.

은 정보를投入, 附加함으로써 變化하고 그것이 personality level에 影響을 주어 새로운 類型의 要求나 欲求를 發生시키고 그 結果 새로운 行動 pattern이 形成되어 드디어는 「生活構造」마저 變化해 가는 dynamic한 變動過程이 이루어진다.

3. 生活體系의 指標

生活體系 4 個 機能的 領域과 3 個 構成次元을 綜合하여 하나의 表로 나타낸 것이 <表 1>이다.

<表 1>에서 提示된 項目은 生活體系의 諸要素를 細分化하여 考察한 것으로 生活體系의 第一次의 指標로서 看做되며 다시 그것을 變數化 시킴으로써 統計的 操作이 可能한 具體的인 「生活體系 變數目錄」내지 「生活의 質」 指標 (Quality of life Indicators: Q.I.)가 導出된다.

第三節 生活體系의 發展

1. 生活體系의 成長

美國의 經濟學者 Kenneth E Boulding은 「成長의 一般理論」(general theory of growth)을 主張하여 成長現象을 「純成長(simple growth)」 「population 成長」 「製造的成長」 등의 세 가지로 分類하였다.

生活體系의 成長도 Kenneth E. Boulding의 세 가지 成長側面으로 分析할 수 있다.

生活體系의 「純成長」은 所得의 增大 또는 綜合化된 生活水準의 上昇 등으로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生活體系의 「population 成長」이란 耐久財의 保有自由裁量時間, 自由裁量所得 등 相互間에 同質的이라고 看做할 수 있는 構成要素의 量的 增大와 特定要素와 他要素 間의 關聯度가 增大되는 것이라고 解析할 수 있다.

한편 生活體系의 「製造的 成長」이란 오히려 發展(development)이라 불리워지는 것으로 異質的인 投入에 따라 特定構成要素의 變化가 諸要素間의 關係를 變化시키고 나아가서 全體로서의 製造的 變化를 가지오는 것을 말한다. 生活體系의 發展이란 바로 이러한 「製造的 成長」을 意味한다.

2. 「生活의 質」의 向上

生活體系의 經驗的 調查와 그 結果의 多變量分析에 따르면 生活體系의 基本的 因子는 生活의 物的 豐饒와 心理的 達成感, 充足感이다.

따라서 生活體系의 發展을 測定하는 變數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다. 먼저 生活의 豐饒度에 對한 變數로는 自由裁量所得, 資產, 財貨 保有, energy 消費量, 自由裁量時間, 支出 pattern의 變化 등이 있고 「達成感·充足感」에 對한 變數로는 生活滿足度, 自由意識, 成就感, 그밖에 負(-)의 變數로 剝奪感, 疎外感, 危險感, 緊張感, 不安 등이 있다.

實際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變數에 對하여 統計的 操作이 可能한 指標를 設定하여 生活體系의 發展 程度를 測定하게 된다.

第四章 「生活의 質」測定

第一節 「生活의 質」 指標의 基本的 特徵

1. 非貨幣的 要素의 重視

「生活의 質」을 測定하기 爲하여 貨幣的으로 測定이 不可能하거나 困難한 것이라도 그것이 人間의 福祉에 重要한 影響을 주는 것이고 政策的으로 다루어질 性質의 것이라면 이를 指標化하고 그 改善에 努力할 必要가 있다.

2. stock의 考慮

生活의 豐饒와 安定은 所得과 같은 flow의 크기뿐만 아니라 蓄積된 stock의 量과 質에도 크게 依存한다.

「카우보이 經濟(cowboy economy)에서 宇宙人 經濟(spaceman economy)에로의 移轉⁽¹⁶⁾」이라는 Kenneth E. Boulding의 교묘한 比喩는 오늘날 人類가 直面하고 있는 自然資源 stock의 重要性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國民의 生計費와 福祉에 미치는 物價의 影響을 보다 正確하게 나타내기 爲해서는 從來의 物價指數와는 別途로 不動產 stock의 價格變化 등도 物價計算에 包含하여 福祉物價指數라 할 수 있는 것을 作成하여야 할 것이다.

3. 「財貨의 質」 考慮

(16) Kenneth E. Boulding, *Beyond Economics: Essays on Society, Religion and Eth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8), p. 83.

「生活의 질」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財貨나 service 中에는 「특은 財貨(goods)」로 부터 「나쁜 財貨(disproduct)」에 이르기 까지 여러가지 質의 財貨가 存在한다.

이와같이 財貨도 福祉의 見地에서 살펴보면 현저한 質의 差異가 있으므로 生産量 뿐만 아니라 質의 側面도 考慮하여야 한다.

4. 分配의 考慮

所得이 · 富의 增大와 아울러 그 分配의 公正과 生活의 安定도 福祉를 左右한다. 이 點은 Arthur C. Pigou의 指摘한⁽¹⁷⁾ 以來 經濟學者들의 共通된 見解이다.

그러나 J. Robins가 個人間的 効用比較가 不可能하다고 主張하여 A.C. Pigou의 命題를 批判한⁽¹⁸⁾ 以來 適正分配의 問題가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取扱된 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이다.

分配의 公正問題는 單純히 所得이라는 flow에 注重할 것이 아니라 資産등의 stock도 考慮하여야 한다는 財產所有의 平等을 追求하는 「財產所有 民主主義(property owning democracy)」만이 經濟的 能率과 正義를 兩立시키는 方案이라고 主張한다.⁽¹⁹⁾

分配問題는 經濟外的 要因에 대해서도 考慮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가령 所得階層間, 人種間, 地域間的 環境格差, 死亡率格差, 大學進學率格差등을 社會的 問題로 取扱하는 것은 分配와도 關係가 있다.

5. 生活의 安定

A.C. Pigou는 國民所得의 增大, 分配의 平等과 아울러 國民所得의 安定이 國民의 福祉를 增進시킨다고 보았으나,⁽²⁰⁾ 國民所得 變動의 安定뿐만 아니라 資産 stock의 安定性, 그밖에 經濟外的 要因의 安定性도 마찬가지로 國民의 福祉를 左右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生活의 질」을 測定하는데 있어 이러한 生活의 安定性도 指標化할 必要가 있으며 經濟政策과 企業經營에도 「不安」을 考慮하여

야 한다.

6. 主觀性과 參加意識

再論할 必要도 없이 人間의 幸福은 各者가 主觀的으로 認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QLI가 人間의 福祉狀態를 測定하는 指標라고 한다면 당연히 人間의 主觀的 精神的 滿足을 表示하는 指標를 包含하여야 할 것이다.

7. 國際協力

오늘날과 같이 相互 密接한 國際經濟體制下에서는 一國의 經濟社會政策은 自國民의 福祉뿐만 아니라 他國人的 福祉에도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今日의 國際經濟 下에서는 各國이 相互關係諸國의 利益과 福祉를 尊重하고 自國의 政策을 他國에 理解시켜 모든 人類의 福祉를 極大化시켜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아울러 福祉의 尺度에 國際協力 關係도 反映하여야 할 것이다.

第二節 「生活의 質 指標」의 體系化

1. 社會目標와 「生活의 質 指標」

「生活의 質」指標(Quality of Life Indicators: QLI) 또는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 SI)의 體系化를 爲해서 먼저 社會目標(Social Goals: S.G.) 내지 社會開發의 對象이 되는 分野를 몇개의 範疇로 分類할 必要가 있다. 國民福祉라는 包括的이고 質的인 內容을 社會目標體系라고 하는 量的 質的 比較가 可能한 具體的인 範疇로 大分類를 하고 나서 各 社會의 目標分野는 다시 그 基本性格에 따라 몇개의 「基本的 · 社會的 關心事項(Fundamental Social Concern: FSC)」으로 區分한다. 이렇게 區分된 「基本的 · 社會的 關心事項」은 社會目標 各 分野에 있어서의 量的 · 質的 尺度를 包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具體的인 福祉把握을 爲해서 各 基本的 社會的 關心事項은 다시 몇개의 1次的 下位 關心事項들(sub-concern: S.C)로 細分한다. 이렇

(17) A.C. Pigou는 다른 事情이 同一하다면 ① 國民分配分의 增大, ② 國民分配分 中 貧者에 歸屬하는 部分의 增大, ③ 國民分配分 變動의 減少등은 經濟的 厚生을 增大시키는 傾向이 있다는 命題를 認定하였다.

Arthur C. Pigou, *Economics of Welfare* (London Macmillan and Co., 1954), pp. 106-122.

(18) 拙著, 經濟學, 司法行政受驗叢書(서울, 韓國司法行政學會, 1974), pp. 464-465.

(19) James E. Meade, *The Growing Economy*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8), pp. 4-48.

(20) Pigou, *op. cit.*, 106-122, pp. 742-757.

게 細分된 1次的 下位 關心事項들의 現況을 把握하기 爲하여 具體的인 指標로서 社會統計에 立脚한 廣義의 QLI,⁽²¹⁾ 또는 社會指標가 最終的으로 作成된다.⁽²²⁾

2. 「生活의 質」 指標의 分類

가. 經濟指標와 非經濟指標

經濟指標란 —A.C. Pigou가 經濟的 厚生과 非經濟的 厚生을 區分할 때 定義하였듯이⁽²³⁾—貨幣로서 測定되고 表示되는 指標를 말한다 換言하면 貨幣的 指標라 할 수 있다.

社會指標나 QLI를 狹義로 解析하면 經濟量으로 測定할 수 없는 非經濟的 指標만을 意味하나 本論文에서는 QLI를 廣義로 보아 經濟指標도 包含하는 包括的 指標로 解析하기로 한다.

나. 成果指標와 構造指標

QLI는 社會的 價值評價인 成果(performance)에 關한 指標와 그 果의 基礎가 되는 構造(structure)에 關한 指標로 分類할 수 있다.

다. 產出指標와 投入指標

成果指標와 構造指標의 區分과 類似한 것으로 產業指標와 投入指標의 區分이 있다. 例를 들면 健康은 醫師나 看護員 또는 病院이라는 投入(input)의 結果로서 產出(output)된다고 할 수 있다.

投入指標와 產出指標는 投入·產出 關係를 明確히 하여 經濟社會政策의 用具(apparatus)로 하는 同時에 經濟社會 問題에 對한 情報⁽²⁴⁾를 國民에게 提供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으므로 兩者의 區分은 이 目的에 適合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라. Flow 指標와 Stock指標

Flow는 一定期間을 通하여 把握한 概念이고 stock는 一定時點에서 把握한 概念이다.⁽²⁵⁾ Flow指標와 Stock指標는 兩者가 直接으로 比較되거나 集計될 수 없으므로 兩者의 比較나 集計의 경우에는 特別한 配慮가 必要하다.

以上에서 우리는 社會指標를 成果와 構造, 投入와 產出, Flow와 Stock라는 基準에서 分類하였으나 實際로 指標의 作成에 위의 세가지 區分을 모두 採用한 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고 또한 不必要하므로 便宜上 <表 2>와 같이 整理해보기로 한다.

<表 2> 社會指標의 組合

			Flow指標 (產出指標)	Stock指標 (投入指標)
成 果 指 標 (質)	果 的 指 標	指 標	Ⓐ	Ⓑ
		指 標	Ⓒ	Ⓓ

그러나 實際로 指標를 選擇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指標를 <表 2>의 Ⓐ와 Ⓓ로 兩分하는 方法이 흔히 使用된다. <表 2>의 Ⓐ部分은 成果指標인 同時에 產出指標요 Flow指標이고 Ⓓ部分은 Stock指標인 同時에 構造指標요 Ⓐ에 對한 投入指標이다.

마. 푸러스 指標와 마이너스指標

社會指標는 그 指標의 上昇이 人間의 福祉를 增進시킨다고 看做되는 指標와 逆으로 그 上昇이 人間의 福祉를 低下시키는 指標로 區分할 必要가 있다. 前者를 「푸러스 指標(positive indicators)」, 後者를 「마이너스 指標(negative indicators)」라 부른다. 푸러스 指標와 마이너스 指標는 兩者를 單純히 比較하거나 集計할 수는 없고 兩者를 指數나 點數로 換算하여 比較나 集計를 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指數化의 경우 푸러스 指標에 對해서는 基準値에 比하여 작을 때 指數가 커지도록 하면 集計나 比較가 可能하다.

바. 量的指標와 質的指標

QLI 自體가 質(quality)을 量(quantity)으로 表示하고자 하는 것이고 量으로 表示하여도 오히려 그 構成이 問題되는 경우에 그 構成이나 內容을 다시 內的인 指標로서 量的으로 表示하고자 하는

(21) QLI는 廣義로는 社會指標와 同一한 概念이고 狹義로는 보다 主觀的이고 非物質的인 福祉에 關한 指標를 意味한다.

(22) 洪文信, 「社會開發의 概念에 關한 研究」 中間報告書, 第7411卷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74) pp. 71—2.

(23) Pigou, *op. cit.*, pp. 3—22.

(24) 一國의 經濟循環을 說明하는 產業關聯表도 이러한 投入 產出分析에 依存하고 있다.

Wassil·Leontief, *Input-Output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13—29.

(25) Richard S. Lipsey, *An Introduction to Positive Economics*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8), p. 36.

것이 質的 指標이다. 따라서 <表 2>의 ㉔部分은 量的 指標이고 ㉕部分은 質的 指標라 생각하여도 무방하다.

3. 「生活의 質」 指標의 體系

QLI의 用途에 따라 分類의 基準이 달라지고 여러가지 層에 따른 指標를 同時에 使用할 수도

있다. 결국 QLI의 體系化는 分析目的에 適合한 指標區分을 選擇하고 이들의 組合을 通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QLI 體系에 대한 하나의 試案으로서 <表 3>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表 3> 「生活의 質」 指標의 體系

			Flow 成果指標	Stock 構造指標	分 平等指標
國民 福祉 指標	經 濟 指 標	平均水準	A ₁	B ₁	C ₁
		安定性	A ₂	B ₂	C ₂
	非經濟指標 (狹義의 社會指標)	生存과 安全	A ₃	B ₃	C ₃
		環境의 快適	A ₄	B ₄	C ₄
		生活充足感(삶의 보람)	A ₅	B ₅	C ₅
國際 協力 指標	經濟指標	國際的 經濟交流	A ₆	B ₆	C ₆
	非經濟指標	國際的인 經濟外的 交流	A ₇	B ₇	C ₇

가. 經濟成果指標
<表 3>의 經濟指標中 A₁, A₂는 國民所得의 增大와 安定이 經濟的 福祉를 增進시킨다는 A.C. Pigou의 命題를 Flow의 觀點에서 作成한 것이고 B₁, B₂는 이를 stock에도 擴張하여 適用한 것이다.

나. 經濟構造指標

經濟構造指標은 市場構造에 關한 指標와 狹義의 生活構造에 關한 指標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이를 區別하지 않고 質的 指標에 附隨的인 指標를 가리키고 있다.

다. 社會成果指標

非經濟의 側面的 成果指標은 이를 人間의 欲求에 對應하여 세가지로 區分하고 經濟指標의 경우와 같이 各各에 對하여 分配 또는 分布狀態를 나타내는 指標가 考慮된다.

欲求의 本質에 대하여는 古代 Aristoteles로부터 比較的 最近에는 A.H. Maslow의 5段階區分⁽²⁶⁾과 W.E. Thomas의 4段階分類⁽²⁷⁾ 등이 있는데 欲求를

그 段階(hierarchy)에 따라 ① 生存과 安全의 欲求 ② 生活의 快適을 追求하는 欲求 ③보다 高次的인 精神的·主觀的인 欲求등의 세가지 種類로 區分하는 것이 無理가 없다고 보아 이에 따라 指標의 體系化가 이루어진다.

(1) 生存·安全指標

社會成果指標의 첫째는 人間生活에 있어서 基本的이라고 할 수 있는 生存과 安全이 어느 程度 保障되어 있는가를 測定하는 指標이다. 生命의 安全은 그 자체가 福祉의 享受에 必須的이고 肉親을 비롯한 關聯者들의 幸福에도 直結된다고 하겠다.

(2) 生活環境의 快適度指標

非經濟指標의 두번째 category는 生活環境의 快適度를 表示하는 指標이다. 이것은 QLI의 中心이 되는 것으로 여러가지 觀點에서 區分되고 있다.

하나의 方法은 政府의 豫算區分에 對應시키는 方法이다. 이 方法을 使用하면 政府支出이 各 社會指標에 미치는 影響을 析分하기 쉽고 또한 關係

(26) A.H. Maslow는 欲求사이에 하나의 序列이 있어 下級의 欲求가 充足되면 다시 高級의 欲求가 段階的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欲求를 다음과 같은 順序로 分類하였다. ① 生理的 欲求, ② 安定의 欲求, ③ 所屬과 愛情의 欲求, ④ 名譽의 欲求, ⑤ 自己實現의 欲求등이 그것이다.

A.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54, p. 93-154.

(27) W.E. Thomas는 ① 安全의 欲求 ② 認知의 欲求 ③ 尊重의 欲求 ④ 好奇心의 欲求 등 네가지 基礎的 動機를 提示하였다.

金明勳, 鄭永潤, 「心理學」(서울; 博英社, 1972), p. 146.

部處에 대해 目標과 責任을 賦課하기가 容易하다. 또 하나의 方法은 常識의 區分으로 生活環境의 快適度 指標을 ① 住居, 生活施設 및 交通의 便宜快適性 ② 公害, 環境破壞의 程度 ③ 勞動環境의 快適性 ④ 教育 文化水準 등으로 區分한다.

(3) 生活充足感 指標

精神的, 主觀的, 滿足感이 人間의 幸福에 있어 窮極의인 것이다.

精神的, 主觀的, 滿足度를 나타내는 福祉指標로서는 먼저 마이너스 指標로서, ① 自殺率, 푸리스 指標로서는, ② 餘暇充足度, ③ 眞善美關係指標 ④ 參加에 關한 指標, ⑤ 體系的, 定期的, 輿論調查의 結果등의 다섯가지 種類의 指標가 흔히 使用된다.

라. 社會的 分配과 構造에 關한 指標

經濟指標의 分配에 그 分配과 構造에 대한 指標가 使用된 것과 같이 非經濟指標도 分配의 平等을 測定하는 指標와 社會成果 뿐만 아니라 社會構造를 表示하는 指標도 包含하고 있다.

非貨幣的 福祉指標로 所得階層間, 地域間, 勞資間 人種間的 格差를 測定하여 이것이 <表 3>의 C_3 , C_4 , C_5 로 表示되고 있다.

마. 國際協力 指標

國際協力度—世界福祉에의 貢獻度—를 나타내는 指標로 經濟指標에서는 첫째 低開發國에 대한 援助額을 使用한다.

두번째의 經濟指標는 貿易自由化의 程度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이너스 指標로서 輸入制限品目的 數호가 採擇되거나 關稅率이 考慮된다. 그밖에 UN, IMF 등 國際機構에 대한 出資金 (1人當 GNP 金額과 對GNP比)이나 國際的 文化交流을 爲한 支出(1人當 支出額과 對GNP比)등이 使用된다. 非經濟指標로는 國際的 文化, 藝術, 教育등의 分野에 있어 非貨幣的 交流에 關한 指標가 使用된다.

4. 社會指標의 綜合化

가. 社會指標 綜合化의 意義

福祉狀態의 國際比較나 經濟段階를 分析하는데 있어 個別指標만으로는 不充分하다. 따라서 個別指標를 可能한 한 集計化하여 全體的인 比較와 評價를 可能하게 하는 方法이 摸索되어야 한다.

個個의 經濟指標를 集計化하여 國民總生產(GNP)이라는 集計指標를 作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社會指標에 대해서도 集計化가 切實히 要請된다. GNP에 代身하는 「國民總福祉(Gross National Welfare : GNW)」 또는 「國民純福祉(Net National Welfare : NNW)」⁽²⁸⁾ 등의 概念은 社會指標의 國民的 集計를 抽象的으로 表示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貨幣的 集計와 非貨幣的 集計

集計化의 方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最終的으로 各 指標를 可能한 한 貨幣的으로 換算하여 集計化함으로써 하나의 貨幣額으로 表示하려는 方法이고 또 하나의 方法은 貨幣的 指標와 非貨幣的 指標를 모두 指標化⁽²⁹⁾하고 이것에 加重值(weight)를 주어 集計化하려는 方法이다. 이에는 weight를 주는 方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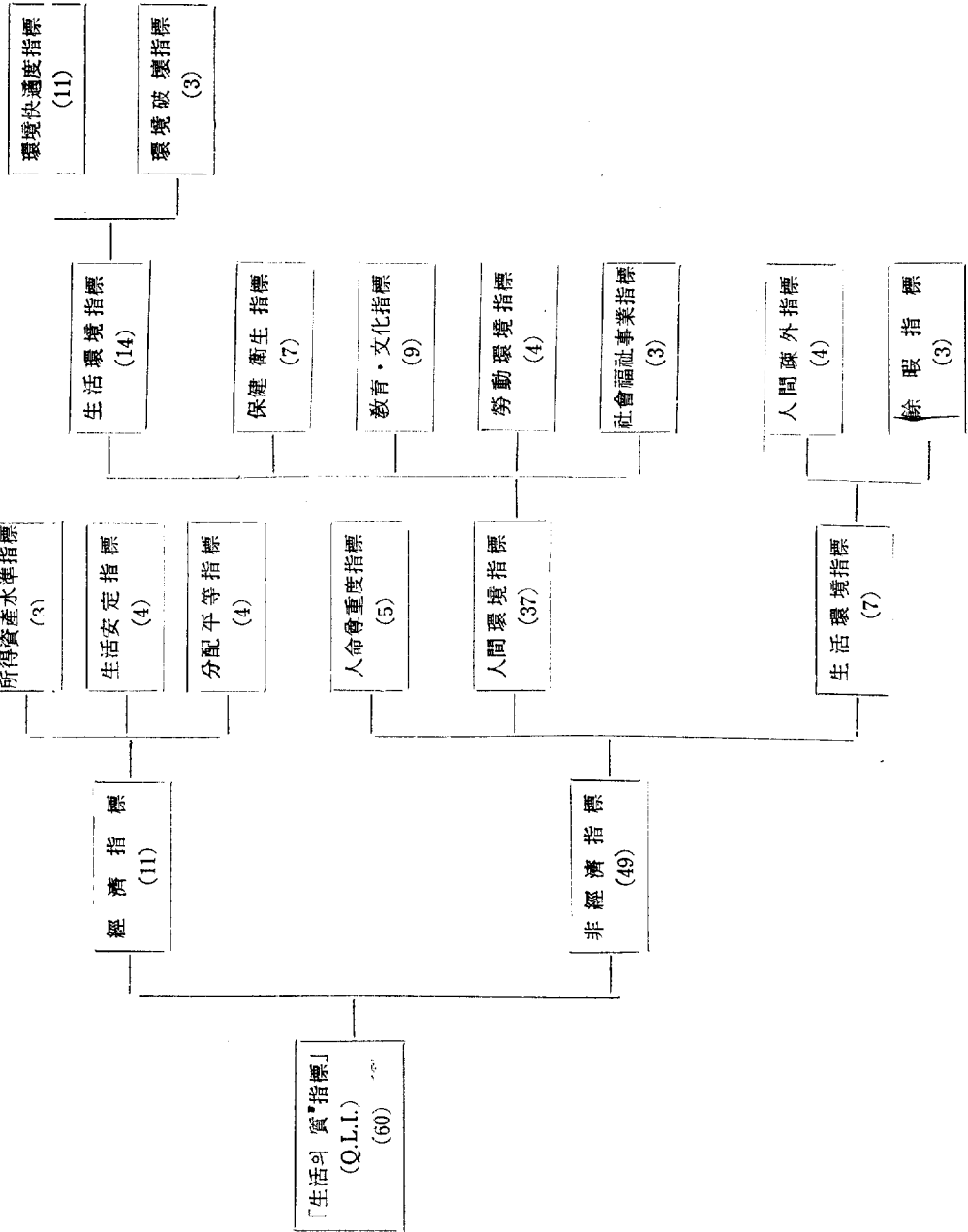
다. 加重值 (weight)의 決定

各 指標에 대하여 加重值를 賦與하는 方法으로 여러가지 提案이 있으나 ① 各 福祉要因에 支出된 家計支出과 財政支出의 合計를 求하고 이것의 家計總支出과 財政總支出의 合計에 대한 比重을 使用하는 方法과, ② 體系的인 輿論調查와 專門家의 앙케이트 調查結果를 基礎로 하여 決定하는 方法 등이 주로 使用된다. 그밖에 國際比較의 경우에 中心指標(예를 들어 1人當 GNP)와의 相關係數를 計算하여 그 相關係數에 對應하여 그 값이 클수록 큰 weight를 주는 貢獻度 方式이라든가 各國의 生活水準의 隔差를 確實하게 表示하는 指標에 대해 큰 weight를 주는 主因子 分析등도 있으나 充分히 理

(28) N.N.W는 每年의 消費를 Flow로서 計測하여 福祉指標를 構成하려는 것이다. 즉 從來의 GNP에는 包含되지 않던 項目에 대해서도 그것이 國民에게 提供한 便益을 假想的으로 消費하였다고 보고서 計算에 넣을 뿐만 아니라 從來에는 消費로서 取扱되었던 것을 一部 除去함으로써 國民的 經濟的 福祉를 構成하는 量은 國民所得에 의해서 把握하고 所得概念을 補完하려는 方法이다. NNW를 構成하는 具體的 內容에 대해서는 N.N.W. Measurement Committee Economic Council of Japan, *Measuring N.N.W. of Japan* (Tokyo, 1973), p. 7以下 參照

(29) 指數化하는 方法으로는 指標가운데 最高值(또는 目標值)를 100으로 하고 最低值(또는 最低許容限度)를 0으로 하여 各 指標의 相對的 크기를 點數化하는 方法과 時系列分析에서 基準年度를 中心으로 指數를 作成하는 方法이 있다.

〈圖 2〉 韓國國民의 「生活의 質」 指標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of the Korean people)



(註) ()안의 數字는 個別指標의 數를 가리킴

論的이고 計量的인 근거에서 作成된 weight 決定 방법은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5. 巨視的 指標와 微視的 指標

위에서 살펴 본 것은 모두 社經濟會 全般에 關한 巨視的(macro) QLI인데 이러한 巨視的 福祉指標와는 別途로 地域別 福祉指標, 또는 各 產業 내지 企業의 次元에서 福祉指標를 作成할 必要가 있다. 福祉指標의 作成을 通해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明確히 하고 企業으로 하여금 이의 改善에 努力하도록 함이 消費者 保護와 勞使協助의 前提가 된다고 하겠다.

第五章 韓國 國民生活的 質的 變遷

第一節 韓國國民의 「生活的 質」 指標

韓國經濟가 12동안 急tempo로 成長해온 것은 事實이다. 그러니 國民生活水準의 向上 여부를 單純히 經濟成長率이나 1人當 GNP와 같은 經濟的 指標만으로 判斷하는 것은 상당한 問題點이 있다. 特別히 우리나라에서는 環境破壞와 消費者 物價의 暴騰 등으로 인하여 GNP가 國民生活水準을 正確하게 表示하는 指標으로서 不充分하다는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GNP에 代身하여 國民生活的 質을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는 指標를 設定하고 이러한 「生活的 質」 指標(Quality of Life Indicators: QLI)를 通하여 한 나라의 生活水準을 測定하는 것은 經濟社會政策의 樹立과 遂行에 必須的이다.

本 論文에서는 우리나라 國民의 「生活的 質」을 測定하기 爲해서 第四章에서 論한 QLI의 體系에 따라 <圖 2>와 같은 「生活的 質」 指標를 試案으로서 提示해 보았다

<圖 2>에서 알 수 있듯이 「生活的 質」 指標는 우선 貨幣的 測定 여부를 따라 經濟指標와 非經濟指標로 兩分되고 있다. 다시 經濟指標에 대하여는 ① 所得資產水準指標 ② 生活安定指標 ③ 分配公正指標 등의 3大指標로 分類하고 이들 指標는 各各 3個, 4個, 4個의 具體的인 個別指標로 構成되어 있다.

한편 非經濟指標는 ① 人命尊重度指標 ② 人間環境指標 ③ 生活充足感指標 등의 3大 指標로 分類된다. 이 중 人命尊重度 指標는 5個의 個別指標

를 가지고 있으며, 人間環境指標는 다시 生活安定指標, 保健衛生指標, 教育文化指標, 勞動環境指標 社會福祉事業指標 등으로 細分되어 合計 37個의 個別指標를 가지고 있고 生活充足感指標는 다시 人間疎外指標와 餘暇指標로 二分되어 合計 7個의 個別指標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의 6大指標에 包含된 個別指標는 그 選定에 있어 三章에서 論한 生活體系의 機能과 構成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第二節 「生活的 質」 指標의 時系列 分析

우리나라 國民生活的 質的 變遷을 試案으로 提示된 「生活的 質 指標」에 맞춰 時系列로 나타낸 것이 <表 4>이다. <表 4>에서 우리나라 國民의 福祉狀態의 變化를 어느 程度 把握할 수 있으나 이것은 完全한 國民福祉의 指標라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 對象으로 삼은 個別指標 中에서 資料수집이 不可能하거나 時系列로서 不完全한 系列이 없지 않다.

둘째로 1965年 以後 既刊된 資料를 利用하였기 때문에 統計作成方法이나 調査方法의 改善에 따르는 概念이나 質的差異에 充分한 調整이 加味되지 않고 一貫性이 缺如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QLI는 그 本質的인 理由로 말미암아 아직 完全한 體系가 確立되지 않았으므로 여기 수록된 指標가 包括的이며 完璧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制約下에 作成된 國民福祉指標로 國民生活的 變化過程을 時系列 分析하는 것은 우리나라 國民生活的 眞正한 發展段階를 理解 하는데 多少의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第三節 「生活的 質」 指標의 綜合化

「生活的 質」의 各 分野를 個別指標로 區分하여 具體的으로 그 改善 여부를 把握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細分된 各各의 指標를 各 分野別로 綜合함으로써 巨視的인 觀點에서 綜合的으로 把握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重要하다. 그러나 社會指標 내지 QLI의 綜合化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生活的 質」 水準을 表示해 주는 各各의 指標 가운데는 결코 同一한 次元에서 比較될 수 없는 指

〈表4〉國民福祉指標

年次	單位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備	考		
經濟	所得・資產水準指標	106	126	143	168	208	235	266	293	363	483	
	1人當GNP	\$										
	金融資產	千圓	1.53	3.24	5.86	10.56	18.61	24.17	30.01	39.86	55.19	69.03
	實質資金指數 (經濟成長率)	%	65.6	69.0	76.8	86.1	91.4	100	106.1	109.6	116.4	127.7
指	(實質資金上昇率)	%	6.1	12.4	7.8	12.6	15.0	7.9	9.2	7.0	16.5	8.6
	(勞動生產性上昇率)	%	15.9	4.2	17.6	17.7	23.3	13.1	8.9	7.9	8.3	10.0
	國民所得變動率	%	28.7	30.4	20.3	25.4	24.9	28.9	19.5	37.2	40.0	40.0
	消費者物價上昇率	%	13.6	12.0	10.9	11.2	10.0	12.7	12.3	11.8	3.1	23.6
標	失業率	%	7.4	7.1	6.2	5.1	4.8	4.5	4.5	4.5	4.1	4.1
	國際收支赤字率	%	57.9	63.2	63.2	63.2	60.1	51.1	48.0	25.5	14.8	27.3
	勞動分配率	%	30.9	32.7	36.6	37.9	38.6	39.0	39.0	38.8	37.4	37.1
	產業別賃金格差	倍						2.46	2.63	2.58	2.46	1.93
非經濟指標	地域別所得格差	%	99.7	80.6	60.1	62.6	65.3	67.1	78.9	80.3	8.74	104.7
	性別賃金格差	男子-100							46.6	54.5	45.8	
	死亡率	名	10	9.1	9.1	8.9	8.6	9.0		7.9	7.4	
	乳兒死亡率	%		3.32				2.65				
非經濟指標	交通事故人命被害	名	43.3	75.2	96.5	110.5	137.3	148.4	177.6			
	平均壽命	歲		60				63	64			
	殺人事件	件	568	567	818	500	570	620	609	438	550	
	乳兒是滿2歲까지로 한	○ 人口 10萬名當										

區	分	指	標	單位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備	考	
非	人	化	電話普及率	%	0.77	0.95	1.1	1.3	1.4	1.7	2.0	2.3	2.6	3.0		○ 人口 10萬名當	
			圖書館藏書數	卷	325	391	446	439	478	551	623	638					○ 人口 10萬名當
			圖書館藏書數	%	16.2	17.8	17.6	17.1	16.1	17.5	18.9	16.9	15.7				○ 말을文庫圖書包含
經	濟	勞動災害率	%		23.1	25.4	24.2	18.9	15.5	15.4	15.9	15.1	15.1	15.1	○ 100萬延勞動時間當		
		勞動損失日數	千日		40.6	10.0	65.4	163.4	9.0	11.3					○ 勞動組合이 組織된 聯		
		1個月間平均勞動時間	時間						225.3	225.8	221.3	219.8	217.6		○ 場의 勞動爭議		
指	標	厚生福利施設	個	713	766	775	909	981	893	1152	1136	1102			○ 住宅救護對象者		
		極貧者數	%	1.0	1.09	1.18	1.09	1.13	0.97	1.01	1.30	1.18					
		社會事業費對GNP	%	1.70	1.48	1.16	1.92	1.36	0.95	0.81	0.72						
生	活	犯罪發生數	千件	443.4	399.8	361.6	333.1	352.0	333	351.6	369.8	323.4	343.4		○ 서울特別市 人口 10萬名當		
		自殺率	%							8.96	25.6	24.4			○ 變死體中 自殺로 判明한 包含		
		離婚率	%		0.83	7957				76.6	91.9	72.9					
餘	暇	旅行距離	km/人	528.5	696.8	722.2	815.3	909.1	961.8	1,011.0	1,129.4	1,315.8			○ 人口 10萬名當		
		戲院場數	個					3.4	0.89	0.91	0.82				○ 서울特別市		
		1人當古宮入場回数	回	0.95	0.88	0.85	0.86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白書 1965-74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報 1965-74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1970-73
經濟企劃院, 產業成長年報 1971-74
經濟企劃院, 物價年報 1969-73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0-73
經濟企劃院, 人口센서報告 1966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1970

財務部, 金融貯蓄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商工部, 商工統計年報
交通運輸部, 交通統計年報
交通部, 交通統計年報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1975
1965-75
1968-72
1973
1969-74
1967-74
1967-75
1966-71
196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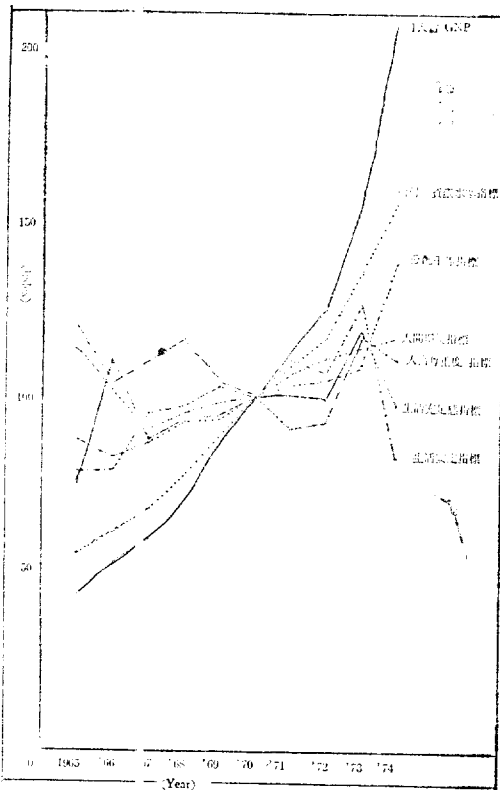
勞動廳, 韓國勞動統計年報 1971-74
勞動廳, 職種別賃金調査結果報告書 1971-74
勞動廳, 專業體勞動調查報告書 1971-74
勞動廳, 每月勞動統計調查報告書 1974-75
內務部, 韓國都市年鑑 1969-74
서울特別市, 서울統計年報 1965-73
서울特別市, 市政便覽 1973-74
大檢察廳, 犯罪分析 1965-74

〈表4〉國民福祉指數(列示)

區	分	指	標	單位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備	考					
非經濟	環境	生活環境	住宅普及率 平均使用人員 對GNP 投資普及率 普及率 消費量 energy 水 鋪裝率 市面積 自動車臺	%	81.3	78.6	79.6	78.7	78.1	77.8	77.8	75.5	74.8	75.6	5.54	○普通家口의 家口員數					
					5.93				5.53												
					1.7	2.1	2.2	3.0	2.99	2.89	2.75										
					21.1	22.2	25.1	27.0	29.8	36.4	37.8										
					0.84	0.87	0.95	1.01	1.10	1.32	1.35										
					106	110	110	128	135	158	177										
					17.7	16.5	17.6	18.1	18.5	23.7	28.3										
					1.46	1.72	2.05	2.68	3.53	4.11	4.53										
									0.099												
經濟	環境	環境破壞	야랑산 gas 濃度 川 B.O.D. 濃度 露音公害度	P.P.M. P.P.M. phon	0.003	0.017	0.022	0.022	0.058	0.048	0.051	0.040	0.043	0.045	0.045	○서울特別市					
					上流	1.3	1.7	1.7	2.0	2.5	2.0	1.8	2.0	2.5							
					下流	3.2	5.6	5.6	7.8	11.0	11.9	7.7	8.8	9.9							
保健衛生	指標	醫師數 看護員數 病室數 結核有病者數 營養攝取量 蛋白質消費量 保健康業對GNP	數 數 數 率 量 量 %	38.3	39.6	41.5	43.9	45.6	47.7	50.9	52.5	51.6	37.3	37.3	○人口 10萬名當						
				31.4	34.0	36.6	39.5	42.4	46.3	51.4	59.0	66.7	56.6	56.6	56.6	○人口 10萬名當					
				40.3	44.2	50.6	52.0	52.9	52.6	55.0	50.6	55.6	55.6	55.6	55.6	55.6	○人口 10萬名當				
				5.1	4.7			4.1	4.2	4.0	3.8	3.6	3.4	3.6	3.6	3.4	3.4	○成人 1人當 1日攝取量			
教育	指標	1教師當學生數(國民學校) 1教師當學生數(中學校) 高文新 校進目 購讀部	名 名 % % 部	62.4	60.8	60.3	59.3	58.4	56.9	56.0	54.7	53.1	52.3	52.3	○人口 100名當						
				39.4	41.5	42.1	41.4	41.8	42.3	42.6	42.3	42.5	43.1	43.1	43.1	○서울, 釜山 除外					
				69.1	65.7	70.1	68.6	70.1	70.1	69.4	67.2	68.1	67.6	67.6	67.6	67.6	67.6	67.6			
					14.7																

〈表 5〉 福 祉 指 數 表

標 標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人當GNP	45.1	53.6	60.9	71.5	88.5	100	113.2	124.7	154.5	205.5
所得·資産 指標水 ^注	54.7	60.6	68	77.8	88.7	100	109.9	117.6	135.9	167.4
生活安定指標	79.0	79.7	95.6	96.8	102.7	100	110.4	107.1	127.1	82.9
分配平等指標	113.9	102.0	91.7	95.3	98.2	100	103.6	104.6	108.6	138.8
人命尊重度指標	120.0	103.8	96.8	116.3	104	100	91	93.2	117.7	110.7
人間環境指標	87.8	82.6	86.4	93.6	93.9	100	106.9	111.9	114.4	116.6
生活充足感指標	75.9	110.3	87	93.8	94.4	100	100.2	99.5	119.9	96.9



〈圖 3〉 福祉指數圖

標들이多數 있기 때문이다. 社會指標의 綜合化란 결국 各各의 社會指標에 어떤 加重值(weight)를 두어서 綜合化하는가 하는 問題로서 이 問題는 社會

開發政策의 優先度를 정하는 問題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

한편 社會指標의 綜合化의 問題에 대해서는 그것이 本質的인 問題라고 하는 立場과 아직은 時期尙早이며 不必要하다고 하는 立場이 對立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理論的 立場에서의 判斷보다도 現實的인 必要性에 立脚하여 綜合化의 方法으로서 가장 一般적으로 그리고 쉽게 使用될 수 있는 單純平均에 의한 綜合化를 試圖하였다. 즉 〈表 4〉에 나타난 細分된 各各의 社會指標에 대해 1970年⁽³⁰⁾을 100으로 하는 指數(Index)⁽³¹⁾의 時系列을 求한後 이를 6大 指標別로 單純平均하여 最終的인 指數의 時系列을 作成하였다. 이 6大 指標別로 作成된 指數의 時系列이 〈表 5〉의 福祉指數表이고 이를 圖示한 것이 〈圖 3〉의 福祉指數圖이다.

이 福祉指數圖을 통하여 6大 指標의 改善여부와 그 程度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所得資産水準 指標를 보면 1965年以來 上昇을 거듭하여 1974년에는 167.4라는 指標를 記錄하여 1965年의 54.7에 비해 3倍 以上이 增加하였으나 1人當 GNP의 成長에는 못 미치고 있다.

生活安定指標는 指數가 1965年의 79.0에서 1969年의 102.7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向上되었으나 1970년에는 多少 주춤하였다가 그 後 1973년까지 계속 上昇되었다. 그러나 1974년에는 消費者物價의 昂騰으로 인해 82.1로 減少되어 生活의 安定이 그만큼 惡化되었다고 하겠다.

分配平等指標는 1965~67年間에 指數가 下落趨

(30) 1965年을 基準年度로 잡지 않고 1970年을 基準年度로 잡은 것은 統計的 制約에 基因한다.

(31) 마이네스 指標의 指數化에는 基準值에 비해 작을 경우 指數가 커지도록 하였다. 다시말해 指數의 값이 클수록 福祉는 向上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勢를 보여 주어 平等의 見地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였으나 1968年以後 계속 上昇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人命尊重度指標는 1968年을 除外하고는 1965~71年間 계속 指數가 下落하여 生命의 安全이라는 觀點에서 大問題點을 던져 주었으나 1972년부터는 다소 改善되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1974년에는 殺人件數의 增加로 指數가 다시 下落하여 惡化되었다.

人間環境指標는 指數가 1965년의 190에서 1966년에 103.1로 떨어진 것을 除外하고는 꾸준히 向上되고 있어 그만큼 人間環境이 그만큼 改善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生活充足感指標는 指數가 1966년과 1973년에 各 各 낮은 離婚率과 犯罪發生의 減少에 힘입어 急増한 것을 除外하고는 全般的으로 차분한 成長을 보여 주었음은 보람있는 삶이라는 觀點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1974년에는 犯罪發生의 增加로 다시 惡化되었다.

第六章 結 論

現代社會에서 生活하는 各 個人은 누구나 뚜렷한 삶의 目的, 價値觀 및 人間性에 基礎를 둔 同化意識을 追求하고 있다. 다시말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物質中心主義는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기는 커녕 公害 등의 環境破壞와 人間性的의 喪失만을 안겨줘 人間은 이제 生存마저도 再考해 볼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을 높여 모든 國民에게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한 政府의 對策은 緊迫하고도 切實한 것이다.

政府는 各 個人에게 삶의 보람을 保障하여 주기 위하여 從前과 같은 經濟成長 第一主義, 生産 第一主義등을 止揚하고 「生活의 質」 向上主義에 立

脚한 經濟社會政策을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生活의 質」의 向上을 推進하기 爲해서 經濟社會政策 以外에 社會保障政策, 生活環境政策 等의 社會의 모든 分野에 걸친 諸政策을 「生活의 質」이라는 觀點에서 整合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綜合的 體係의 政策은 長期的인 眼目을 갖고 遂行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生活의 質」 指標(Quality of Life Indicators : QLI)作成의 意義도 「生活의 質」의 內容을 明白히 하고 이를 正確히 測定하여 高度의 「生活의 質」을 目標로 하는 經濟社會政策의 樹立과 遂行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그러나 「生活의 質」 指標는 社會全體에 對해 作成 發表하는 것만으로는 不足하고 地域 level에서도 QLI 作成은 積極的으로 試圖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이 살고있는 都市나 마을의 所得水準, 公害程度, 住宅事情, 公園이나 公共 sports 施設, 文化施設등이 다른 地方이나 外國에 比하여 어떠한가를 아는것은 「生活의 質」 問題에 對해 住民의 關心을 높이는 데에 크게 寄與할 것이다.

한편 主要企業이나 工場도 經營指標뿐만 아니라 從業員의 福祉指標와 消費者 및 地域住民에 對한 福祉指標도 作成하여 그 改善에 勞力하여야 할 것이며 經營指標를 나타내는 財務諸表속에 이 QLI를 包含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와같이 「生活의 質」을 모든 次元에서 指標化하고 이를 公表하는 것이 「生活의 質」을 向上시키고 사는 보람을 찾게 하는 捷徑이 될 것이다.

결국 「生活의 質」의 向上은 福祉의 核心이며 現代國家가 달성하여야 할 最大의 課題이다. 그러나 「生活의 質」의 向上은 한 個人만의 勞力이나 政府의 一方的 試圖만으로는 그 成果를 보기 힘들다. 모든 國民의 努力과 政府의 積極的인 政策遂行을 通하여 비로소 「生活의 質」은 向上되는 것이며 그 結果 어두운 社會로부터 삶의 보람은 滿喫하는 밝은 社會가 이룩된 것이다.

<附錄 1>

年度別 卒業生現況(1976. 2. 現在)

回	年度	1 部	2部	計
第一回	1961	33	54	87
二	1962	26	47	73
三	1963	12	61	73
四	1964	28	50	78
五	1965	39	49	88
六	1966	26	40	66
七	1967	23	55	78
八	1968	26	48	74
九	1969	28	45	73
十	1970	31	47	78
十一	1971	27	33	60
十二	1972	22	38	60
十三	1973	28	30	58
十四	1974	31	29	60
十五	1975	21	20	41
十六	1976	14	17	31
計		415	663	1,078

<附錄 2> 卒業生の 社會 進出現況

1. 機關別 期別 卒業生 進出(1975. 2. 現在) (괄호안은 人員數)

青瓦臺(18), 國務總理室(9), 經濟科學審議會議(3), 行政改革調查委員會(5), 監查院(19), 中央情報部(11), 國會(24), 經濟企劃院(24), 外務部(28), 內務部(46), 財務部(12), 國防部(19), 文教部(16), 商工部(37), 交通部(24), 陸軍(25), 空軍(8), 海軍(16), 建設部(27), 保健社會部(7), 科學技術處(10), 總務處(14), 文化公報部(16), 農水產部(21), 山林廳(4), 調達廳(4), 援護處(3), 遞信部(47), 國土統一院(8), 法制處(3), 水產廳(4), 勞動廳(11), 鐵道廳(19), 關稅廳(7), 國稅廳(30), 서울市(32), 法院(4), 法務部・檢察廳(9), 國營企業體(28), 金融廳(31), 學校(71). 合計 743名

2. 現況卒業生들의 學界進出狀況

姜錫基(大或高校長), 金炳烈(서울教大), 姜信澤(서울大・行大), 金圭定(中央大), 白完基(國民大), 慎斗範(明知大), 吳錫泓(서울大・行大), 李東眞(美國테이도大), 李壽寧(釜山大・

行大), 李汝承(明知大), 黃仁政(서울大·行大), 崔誠實(崇田大), 柳海仁(城東中校長), 金永燮(漢陽大), 崔在燦(嶺南大), 韓英煥(中央大), 黃明燦(建國大), 鄭世煜(國民大), 文光千(明知大), 劉鍾海(延世大), 咸根培(海洋大), 朴萬庸(釜山大), 朴英熙(建國大·行大), 韓昇洙(서울大·經營大), 金吉助(仁荷大), 劉完彬(明知大), 崔相哲(서울大·環境大), 玄光植(延禧高), 徐載根(國民大), 尹炳台(嶺南大), 林東喆(海洋大), 崔雲芝(明知大), 金光雄(서울大·行大), 金安濟(서울大·環境大), 安秉永(延世大), 李昌杰(晉州教大), 張泰鈺(嶺南大), 朴準鳴(東國大), 金東熙(서울大), 尹在豐(全南大), 金仁基(中央大), 宋喜鐵(航空大), 徐基榮(東國大), 申相俊(清州初大), 金晚基(韓國外大), 許範(崇田大), 金永勳(國際大), 閔星奎(海洋大), 鄭正佶(慶北大), 金明勳(明知大), 盧宜鎬(農協大), 洪根一(原州大), 李元雨(清州大), 李宗范(서울大), 洪湧(서울大), 盧化俊(서울大·行大), 金東炫(서울大·渡美), 李南洙(忠南大), 李長春(弘益大), 구본대(忠南大), 박기영(全北大), 이길성(서울大·法律研究所), 이양우(서울大), 金仁浩(서울大), 金錫俊(서울大), 徐成源(明知大), 李俊雄(明知大), 張斗滋(崇義女高), 泰正洙(國防大學院), 林東源(陸士), 韓昇瑚(陸軍工兵教), 孫龍基(空軍大), 金相榮(陸士), 金明勳(陸士), 洪鍾孝(空士), 金信福(國民大)

〈附錄 3〉

行政調查研究所의 研究報告書

1. 1953. 「全國 라디오 聽取者調查」
2. 1960. 「大韓民國政府機構圖表」
3. 1960. 「朝鮮總督府機構解說」
4. 1961. 「市·邑·面行政調查」
5. 1961. 「政府의 地方行政에 對한 地方民들의 態度調查」
6. 1961. 「高等考試應試者調查」
7. 1962.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
8. 1962. 「地方自治意識調查」
9. 1963. 「서울大學校 行政診斷」
10. 1965. 「最高管理調查」
11. 1963. 「公務員制度調查」
12. 1967. 「行政改革에 對한 全般的評價」
13. 1967. 「決定作成過程：韓國行政政府의 公共料金決定에 關한 研究」
14. 1968. 「아시아에 있어서 地域的 經濟協力에 關한 研究」
15. 1969. 「國土統一에 對한 輿論調查」
16. 1970. 「2個道(慶南·全北)의 地方發展에 關한 研究」
17. 1971. 「行政의 TQC制度確立을 위한 研究」

18. 1971. 「沿近海 漁業振興과 水産行政體系의 改善方案 및 不正漁業에 관한 研究」
19. 1971. 「技術系 研究職 公務員의 人事行政改善을 위한 研究」
20. 1972. 「韓國公務員行態調査」
21. 1972. 「南北韓權力構造 및 行政機構比較研究」
22. 1972. 「北韓外交戰略의 展開過程에 관한 綜合評價」
23. 1972. 「統一論의 範圍와 그 形成方法」
24. 1972. 「새 漁村建設을 위한 事業展開의 實質的 方案研究」
25. 1972. 「勤勞女性의 勞動力 保存 및 活用に 관한 研究」
26. 1972. 「南北韓 官僚制度의 比較研究」
27. 1972. 「對北接觸에 따른 國內體制 整備問題」
28. 1972. 「南北韓 行政區域 比較研究」
29. 1973. 「南北協商要員養成方案」
30. 1973. 「政府의 段階的 統韓接近原則과 이에 따른 對北接觸戰略」
31. 1973. 「6.23宣言에 따른 統一政策推進方案」
32. 1973. 「最高政策決定職의 役割에 관한 研究」
33. 1973. 「女性勞動者의 雇傭管理實態와 保護方案에 관한 研究」
34. 1974. 「韓國大學院教育의 質的向上方案」
35. 1974. 「行政能力의 評價」
36. 1974. 「專門大學院教育에 관한 評價」
37. 1974. 「都市새마을運動에 관한 研究」
38. 1974. 「女性勤勞者를 위한 戰略職種の 開發과 이에 따르는 技能訓練 및 그 活用」
39. 1974. 「一線行政強化에 관한 研究」
40. 1975. 「韓國公務員의 適定報酬表에 관한 研究」
41. 1975. 「行政管理改善 長期計劃樹立에 관한 研究」
42. 1975. 「遞信公務員 單獨身分 및 單獨報酬制確立을 위한 研究」
43. 1976. 「韓國兒童 및 靑少年開發을 위한 實態調査研究」
44. 1976. 「새마을運動에 관한 評價 및 實驗的 研究」
45. 1975. 「韓國官僚制의 行態에 관한 研究」

<附錄 4>

教授들의 主要 著書 譯書 및 論文

1. 著 書

金 雲 泰

「行政學要論」, 民衆書館, 1959, 8.

- 「政治學要論」, 博英社 1961, 4.
 「行政學原論」, 博英社, 1966.
 「組織管理論」, 博英社, 1966.
 「現代官僚組織論」, 一潮閣, 1968.
 「朝鮮王朝行政史」(近世篇), 博英社, 1970.
 「朝鮮王朝行政史」(近代篇), 一潮閣, 1970.
 「政治學概論」, (共著), 서울대출판부, 1972. 방송통신대학교재,
 「組織管理論」(共著), 서울대출판부, 1973, 방송통신대학교재
 「韓國民民主義論」(共著), 東西出版社, 1973.
 「解放三十年史 第二卷 第一共和國」, 成文閣, 1976.
 「政治學概論 改訂版」(共著), 서울대출판부, 1975, 방송통신대학교재
 「組織管理論 改訂版」(共著), 서울대출판부, 1975, 방송통신대학교재

朴 貞 緒

- 「韓國官僚制度의 歷史的展開」, 韓國研究院, 1961, 12.
 「人事行政論」, 法文社, 1962.
 「行政學」(共著), 博英社, 1962.
 「比較公務員制度論」, 博英社, 1963.
 「發展論序說」(編著), 博英社 1965.
 「韓國行政의 歷史的分析」(共編著, 韓國行政問題研究
 「韓國行政論」, 法文社, 1972.
 「發展行政論」(編著), 法文社, 1973.
 「行政學練習」(共著), 法文社, 1974.

俞 焄

- 「財務行政論」, 法文社, 1963.
 「行政學講義」(共著), 文運堂, 1960.
 「行政學原論」, 法文社, 1961.
 「行政學大意」, (共著), 法文社, 1962.
 「企業論」, 法文社, 1968.
 「韓國行政의 歷史的分析」(共著), 韓國行政問題研究所, 1969.
 「行政學原論」(改訂版), 法文社, 1970
 「預算制度論」, 博英社, 1973, 12.
 「行政學演習」(共著), 法文社 1974.
 「政策學概論」(共著), 法文社, 1976.

金海東

- 「調查方法論 講義」, 三中堂, 1962.
「社會調查」(共著), 서울대 행정조사연구소, 1962.
「行政事例集」(共著), 法文社, 1974.
「人間關係論」, 서울대出版部, 1974.
「調查方法論」, 서울대出版部, 1974.

安海均

- 「行政導入問(1)」(共著), 서울대出版部 1972, 방송통신대학교재
「Administrative Change & Elite Dynamics」, U.C.I.S. (Univ. of Pittsburgh), 1972.
「行政學概論」, 서울대出版部, 1975.

趙錫俊

- 「行政學大意」(共著), 法文社, 1963.
「組織管理論」, 法文社, 1963.
「組織論」, 法文社, 1973.
「政策學概論」, 法文社, 6人共著, 1976.

崔鍾起

- 「國際行政」, 法文社, 1963.
「國際聯合論」, 博英社, 1964.
「國際關係論」, 博英社, 1966.
「國際聯合軍」, 국제관계연구소, 1972.

姜信澤

- 「Philippine Public Fiscal Administration」中 “Internal Revenue Administration”,
서울대出版部, 1965.
「行政學入門(I)」(共著), 서울대出版部, 1972, 4.
「財務行政論(I)」(共著), 서울대出版部, 1973, 3.
「財務行政論(II)」(共著), 서울대出版部, 1973, 8.
「行政學概論」(共著), 서울대出版部, 1975.
「財務行政論」(I, II), (共著), 서울대出版部, 1976.
「政策學概論」(共著), 法文社, 1976.

吳錫弘

- 「人事行政論」, 博英社, 1975.
「行政學概論」, 서울대出版部, 1975.
「行政學英語講讀」(I, II), 서울대出版部, 1976.

「人事行政論」(I, II), (共著), 서울대出版部 1976.

「發展行政論」(共著), 서울대出版部, 1976.

「國家發展論」(共著), 서울대出版部, 1973.

「發展行政論」(共著), 法文社, 1973.

「人事行政」(I, II), (共著), 서울대出版部, 1973.

「原書講讀」(I, II), 서울대出版部, 1973.

「行政學概論」, 서울대出版部, 1972.

金光雄

「發展行政論」(共著), 法文社, 1973.

「國家發展論」(共著), 서울대出版部, 1974.

「調查方法論」(共著), 서울대出版部, 1975.

「社會科學研究方法論：調查方法과 計量分析」, 博英社, 1976, 6.

「地域社會開發論」(共著), 서울대出版部, 1976, 8.

盧化俊

「政策學概論」(共著), 法文社, 1976.

2. 譯書

金雲泰

「政治學序說」(Charles E. Merriam原著), 第一文化社, 1955. (共譯)

「體系的政治學」(C.E. Merriam 原著), 一潮閣, 1959. (共譯)

「政治學原論」(R.M. MacIver 原著), 韓國大學教材公社 1957. (共譯)

「政治學入門」(R.H. Soltau 原著), 精研社, 1957.

「人事管理論」(P. Pigors 原著), 一潮閣, 1962. (共譯)

朴東緒

「新生國行政論」(Fred W. Riggs 原著), 法文社, 1967. (共譯)

俞 焜

「現代의 政治學」(共譯), 一潮閣,

金海東

「社會調查方法」, 壯文社, 1961.

安海均

「西洋法哲學史」(共譯), 法文社 1960.

「行政國家論」(F.M. Mark 原著), 博英社, 1963.

崔鐘起

「國際社會」(A.H. Feller 原著), 法文社, 1960.

「왜 월남은 敗北했는가」, 光明出版社, 1976.

3. 論 文

朴 東 緒

「韓國行政現象의 特殊性」, 行政管理, 1卷 3號, 1962.

「比較行政의 方法論」, 行政論叢, 1卷, 1962.

「韓國高級公務員의 問題點」, 行政管理, 2卷 2號, 1963.

「政務官과 行政官」, 行政論叢, 2卷 1號, 1964.

「人事制의 再檢討」, 行政論叢, 3卷 1號, 1965.

「發展行政能力의 向上」, 行政論叢, 4卷 1號, 1966.

「韓國行政의 發展을 爲한 提言」, 韓國社會科學論集, 4集, 1966.

「行政學과 教育, 教育과 關聯科學」, 現代教育叢書, 1966.

「地方人事行政」, 韓國地方行政史, 1966,

The status and Role of Korean Aspect of Ad. Dpt., 1967.

「韓國行政理論序說」, 行政論叢, 1967.

「國家發展에 있어서의 行政의 役割」, 韓國行政學報, 1967.

「韓國行政의 史的 變遷模型」, 行政論叢, 8卷 2號, 1967.

“An Ecological Analysis of Korean Administration”, *Koreana Quarterly*, 1967.

「韓國의 政治行態 및 行政過程의 分析과 전망」, 教育과 國家發展, 1968.

「高級管理者의 訓練需要」, 行政論叢, 1968.

「發展行政과 韓國人事行政理論」, 行政論叢, 1968.

「行政大學院教育의 評價」, 行政論叢, 1968.

「行政과 倫理」, 韓國行政學報 2集, 1968.

「韓國行政府의 高級官管理者의 資格調查」, 行政論叢, 1968.

「行政理論의 再編成」, 行政論叢, 7卷 1號, 1969.

「教育內容(行政大學院 10周年紀念)」, 行政論叢, 1969.

「人力政策과 教育行政計劃」, 行政論叢, 1969.

「韓國의 行治行政發展과 教育」, 行政論叢創刊號, 1969.

「서울의 貧民街 行政」, 行政論叢, 1970.

「發展組織과 道청의 Staff」, 行政論叢, 2集 1970.

「都市化, 産業化와 青少年의 人力化 政策」, 行政學報 4集, 1970.

「人力需要와 青少年의 教育訓練政策」, 行政論叢, 1970.

“Comparision of Provincial Dpt. Ad. in Korea,” *J. of Socia land Humanities*, 1970,

「韓日關係 25年 行政編」, 國際關係研究 2卷 1971.

- 「官僚制」民主主義論 韓國政治學會，1971.
- “Comparison of Ad. under Different Ideologies”, *J. of Asian Studies*, 1970,
- 「發展行政下の 韓國官僚權」, 韓國政治學報, 4集, 1971.
- 「發展政策決定과 高級公務員의 役割」, 行政論叢, 1971.
- 「韓國長官의 役割과 責任」, 行政論集, 2,3合輯, 1971.
- 「發展行政下の 政策決定模型」, 行政論叢, 1972.
- 「最近의 英國行政改革」, 行政論叢, 1972.
- 「韓國高級公務員의 成分의 變遷」, 行政論集, 1973.
- 「集權과 分權의 變數」, 行政論叢, 1973.
- 「새마을運動의 目的」, 行政論叢, 1973.
- 「쌀 增産行政의 研究」, 行政論叢, 1974.
- 「政策決定과 生産性」, 發展政策研究, 1974.
- 「一線行政強化에 關한 研究」, 1974.
- 「福祉社會建設의 戰略」, 行政論叢, 1974.
- 「새마을 指導者의 役割, 選出 및 指導技術」, 行政論叢, 1974.
- 「官僚制現狀」, 現代社會論, 방송통신대학 Seires 3, 1975.
- 「韓國의 政治行態와 行政過程, 危機時代를 사는 爭點」, 크리스찬 아카데미編, 1975.
- 「政策決定과 統制力」, 1回合同學術會議, 1975.
- 「文教政策決定의 合理化」, 1975.
- 「報酬表의 合理化 研究」, 行政論叢, 1975.
- 「高等人力의 需用體制」, 韓國行政學報, 9號 1975.
- 「官僚組織의 權力남용은 더욱 심해질 것인가」, 現代의 大課題 50選, 1976.

註：雲 泰

- 「多數決原理의 妥當性問題」, 東國法政創刊號, 1956.
- 「政黨의 政策問題」, 思想界, 1957. 8.
- 「政治的象徵의 操作」, 政治學報創刊號, 1957.
- 「政治過程論의 意義」, 東國法政 1958.
-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Practices in the Government of Korea,” MAPA Thesis 미네스타大學提出, 1959.
- 「行動科學論에 關한 考察」, 政治學報第四號, 1960.
- 「公企業論」, 地方行政, 1961.
- 「印度리이더십의 特徵」, 思想界, 1961, 6.
- 「民主主義意識과 自治精神」, 思想界, 1962.

- 「地方行政의 特殊성과 效率의 運營方法」, 最高會議, 1962, 4.
- 「現代國家論」, 思想界 ' 1964, 1.
- 「後進國 行政比較研究에 關한 考察」, 行政論叢, 2卷 1號, 1964.
- 「過渡社會의 行政體系」, 東國行政, 1964.
- 「韓國行政組織의 特質과 改善에 關한 考察」, 政治研究, 1965.
- 「現代官僚組織의 전문화 過程과 階層制役割의 變動에 關한 狀況의 考察」, 行政論叢, 3卷, 4卷 1965, 67.
- 「韓國公務員制度研究」, 1966.
- 「政治意識의 再論과 政黨制度改善에 關한 研究」, 1967, 1.
- 「朝鮮王朝 行政史研究」, 行政論叢 6卷, 1, 2號 1967.
- 「韓國高級公務員의 社會背景調査」, USAID, 1967.
- 「朝鮮王朝 開港以後의 行政近代化過程研究」, 行政論叢 7卷 2號, 1968.
- 「朝鮮王朝 英正朝以後 行政史」, 1968.
- “People’s Communication and Consciousness in Regional Development, “*Koreana Quarterly* 10卷 2號, 1968.
- 「韓國傳統속의 民主的遺產」, 民主主義論, 1970.
- 「統監府時代의 大韓民國統治體制의 構造와 機能」, 行政論叢 9卷 1號, 1971.
- 「朝鮮後期社會의 解體過程과 政治行政文化의 變遷」, 高大民族文化研究所第5號, 1971.
- 「韓國高級管理者를 爲한 「國家政策特別講座」設置에 즈음하여」, 行政論叢, 9卷 2號, 1971.
- 「韓國의 民主主義의 土着化」, 1972.
- 「傳統的 官人支配體制의 特性」, 閔丙台回甲論文集, 1972.
- 「維新體制下에 서의 行政計劃의 方向」, 地方行政, 1973. 5.
- 「1972年度 政府行政運營 및 公務員管理評價」, 1970.
- 「國家安保政策과 政府의 能率化」, 安保研究, 1973.
- 「日帝時代 政治行政研究 一, 二, 三,」, 行政論叢 1971, 72, 73.
- 「새마을 運動의 論理 및 그 體系定立」, 行政論叢, 11卷 2號, 1973
- 「日帝 李蔭總督의 「文化政治」의 欺瞞性」, 行政論叢, 12卷 1號, 1974.
- 「發展的 政治行政觀의 培養」, 行政論叢, 13卷 2號, 1975.
- 「1930年代 以後의 日帝侵略戰爭動員과 民族抹殺政策」, 行政論叢, 13卷 1號, 1975.
- 「韓國政治體制의 能力發展 (1876~1897)」, 韓國政治學會 開港 100周年紀念, 1976. 8.
- 「韓國政府의 社會的 基盤」, 行政論叢, 14卷 1號, 1976.

- 「豫算의 科學化」, 地方行政, 1959.11.
- 「公企業과 豫算制度」, 行政論叢, 1962.12.
- 「成果主義豫算과 會計檢査」, 監査月報, 1965.7.
- 「우리나라 豫算制度에 대한 批判的 考察」, 國會報, 1965.9.
- 「經濟發展과 公企業」, 行政論叢, 1965.10.
- 「公企業에 대한 政府의 統制」, 監査月報, 1966.9.
- 「韓國高級公務員의 社會的背景」, 行政論叢, 1966.12.
- 「地方公企業의 現況과 二 育成方案」, 市政研究, 2 1967.12.
- 「財務行政의 合理化」, 國會報, 1967.8.
- 「日本의 公企業」, 行政論叢, 1967.9.
- 「불란서의 公企業」, 行政學報, 1967.9.
- 「公企業의 勞動關係」, 行政論叢, 1967.12.
- 「豫算制度에 관한 比較的 考察」, 法制月報, 1968.10.
- 「機關形成에 관한 事例研究」, 行政管理, 1968.12.
- 「公務員勞動運動에 관한 研究」, 行政論集, 1969.12.
- 「PPBS의 意義와 問題點」, 行政論叢, 1969.12.
- 「春川市에 있어서의 資本投資計劃制度」, 1970.11.
- 「Performance Budgeting in Korea」, 行政論叢, 1971.2.
- 「發展計劃豫算」, 監査月報, 1971.5.
- 「會計檢査과 職務監査」, 監査月報, 1971.12.
- 「地域社會開發事業에 대한 住民의 Perception」, 行政論叢, 1971.12.
- 「會計檢査機關의 比較研究」, 監査月報, 1972.3.
- 「豫算決算委員會에 관한 研究」, 行政論叢, 1972.7.
- 「政策과 政策形成」, 行政論叢, 1973.2.
- 「事前檢査에 관한 考察」, 監査月報, 1973.6.
- 「새마을 事業豫算의 分析」, 行政論叢, 1973.12.
-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統制」, 行政論集, 1974.3.
- 「都市行政과 國庫補助政策」, 都市問題, 1974.7.
- 「首都圈高速鐵道の 經營體制」, 都市問題, 1974.10.
- 「韓國의 國家持株會社에 관한 研究」, 行政論叢, 1974.12.
- 「地方財政에 있어서 地方稅의 地位와 役割」, 地方行政, 1975.8.
- 「地方公企業分野의 擴大方案」, 地方行政, 1976.7.
- 「伊太利의 公企業」, 行政論叢, 1976.8.

金 海 東

- 「官僚의 不正의 原因에 關한 理念的 理論構成」, 行政論叢, 4卷21號, 966.
「公務員不正研究方法에 關한 몇가지 問題點」, 韓國行政學報, 3集, 1969.
「行政大學院이 行政業務에 미친 영향」, 行政論叢 7卷 1號, 1969.
「서울의 無住宅家口」, 行政論叢 8卷 1號, 1970.
「官僚腐敗에 關한 研究 I, II」, 行政論叢 10卷 1, 2號, 1972.
「都市 새마을 運動」, 行政論叢, 11卷 2號, 1973.
「새마을運動의 理論的基礎 I, II」, 行政論叢 12卷 1號, 13卷 2號, 1974.
「行政事例와 Case method」, 行政論叢 12卷 2號, 1974.
「官僚腐敗의 社會的 責任」, 新東亞, 1974

安 海 均

- 「小集團의 社會的機能」, 行政論叢, 1962.
「韓國 近代化와 Communication」, 行政論叢, 1963.
「韓國利益集團에 關한 研究」, 行政論叢, 1965.
「政策形成과 利益團體」, 行政管理, 1965.
「韓國行政組織과 小集團」, 行政學報, 1967.
「最近 自然科學이 社會科學에 미친 영향」, 行政學報, 1968.
「南北韓社會變動의 展望」, 國際問題, 1968.
「公報行政史의 展開」, 韓國行政의 史의 分析, 1969.
「文教行政史의 展開」, 韓國行政의 史의 分析, 1969.
「比韓엘리트에 關한 研究」, 研究論叢, 1970.
「行政機關의 變動과 知的엘리트의 役割」, 省谷論叢, 1970.
「政治行政過程의 分析模型」, 行政學報, 1970.
「韓國行政過程의 利益投入研究」, 行政論叢, 1971.
「韓國政黨의 構造와 機能」, 選舉管理誌, 1971.
「北韓長期經濟政策의 基本路線」, 統一論叢, 1971.
「Elite의 吸收統合과 發展模型」, 政治·行政研究, 1972.
「政策決定에의 參與와 制約性」, 行政學報, 1972.
「韓國農村社會變動과 行政體制」, 行政論叢, 1972.
「韓國農村發展政策과 農民의 心理反應」, 1973.
「行政體系의 變動과 發展」, 行政論叢, 1974.
「政策決定에의 接近方法과 過程」, 發展政策研究, 1974.
“Thirty Years of Politics in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75, 76.

「行政目標의 設定과 管理方法의 最近傾向」, 行政論叢, 14권 1호 1976.

趙錫俊

「心理的葛藤과 行政指導者」, 行政論叢 1卷 1號, 1962.

「韓國에서의 行政分權化의 必要性에 關한 研究」, 行政論叢, 2卷 1號, 1963.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行政論叢 4卷 1號, 1966.

「美軍政과 第一共和國의 隨伴機構에 關한 研究」, 行政論叢 4卷 2號, 1966.

“A Case Study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pects of Administrative Development,” 1967.

「決定作成理論의 兩型과 韓國行政」, 行政學報 1卷 1號 1967.

「美軍政과 第一共和國의 部處機構에 關한 研究」 行政論叢 5卷 1號, 1967.

「軍事革命政府와 組織改編」, 行政論叢, 6卷 1號, 1968.

「軍事革命政府下에서의 두개의 行政改革에 關한 研究」, 行政論叢 6卷 2號 1968.

“Decision Making Process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行政論叢 6卷2號1968.

「經濟學研究와 주변社會科學의 貢獻」, 行政學報 1卷 1號, 1968.

“Korean Experience of Administrative Reform,” 行政論叢 7卷 1號, 1969.

“Korean Bureaucracy: Authority and Policy Formation Process,” 行政論叢 8卷 1號,

1970.

“Higher Civil Servants in the U.S.,” 行政論叢 8卷 2號, 1970.

“The Ability to Plan and Administer,” 行政論叢 9卷 1號, 1971.

“Critical Appraisal PERT/CPM Korea,” 行政論叢 10卷 1號, 1972.

“Social Change Perspective for P.A. Curriculum,” 行政論叢 10卷 1號, 1972.

「願望觀」, 行政論叢 10卷 2號, 1972.

“Applying Situation Building Concept to Field,” 行政論叢 10卷 2號, 1972.

「韓國行政組織의 動態의 研究」, 行政論叢 11卷 1號, 1973.

“Case Allocation for Leadership Training,” 行政論叢 12卷 1號, 1973.

“Two Reforms under the military Regime” H.B. Lee, *Administrative Reforms in Asia*, 1970.

“The Bureaucracy, Politics in Transition Press,” 1975.

「韓國中央官署의 組織規模와 非管理層費 및 參謀費의 關係에 關한 研究」, 行政論叢, 132卷 1975.

「서울大學校 教育機構改編의 方向과 法令分析」, 行政論叢 14卷 1號, 1976.

崔鍾起

- 「國際聯合行政上の諸問題」, 國際法學會論 5卷 1號, 1960.
- 「國際公務員의 特權과 免除에 關한 小考」, 國際法學會論叢 5卷 2號, 1960.
- 「國際機構事務局의 行政上の 諸問題」, 行政論叢, 1卷 1號, 1962.
-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行政論叢, 2卷 1號, 1964.
- 「國際政治展開過程에서 본 U.N.」, 國際政治論叢, 4, 5 1965.
- 「後進國開發事業을 爲한 援助・貿易에 關한 檢討」, 行政論叢美, 1966.
- 「美國의 對外援助政策에 對한 考察」, 海外問題, 1966.
- 「技術援助計劃에 對한 檢討」, 行政論叢 5卷 1號, 1967.
- 「外務行政의 變遷과 問題點」, 行政論叢 5卷 2號, 1967.
- 「에키페地域의 經濟協力問題에 關한 檢討」, 海外問題, 1967.
- 「亞細亞經濟協力體構成에 關한 問題點檢討」 行政論叢, 6卷 1號, 1968.
- 「韓國外務公務員의 社會的背景에 對한 分析」, 國際法學會論叢 13卷 1號, 1968.
- “A Review of the Institutes and Schools of Public Ad. in Asia,” 行政論叢 7卷 1號, 1969.
- “An Analysis of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Korean Foreign Service,” 行政論叢 7卷 1號, 1969.
- 「政治・經濟의 狀況變動이 亞細亞協力體에 미치는 영향」, 國際法學會論叢 15卷 1號, 1970.
- 「國際聯合과 韓國: 韓國問題討議를 中心으로」, 國際關係研究 1卷 2號, 1970.
- “The Impact of Japan in Asia: Centering of the Problem of Japan’s Defense,” 1971.
- 「地域協力外交의 새로운 方向」, 韓國安保論叢, 1973.
- 「COMECON의 經濟統合에 關한 小考」, 國際法學會論叢 18卷 1號, 1973.
- “Problems Related to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PAC Region,” *Asia Quarterly*, No.2, 1974.
- 「外務行政機構變遷過程에 關한 小考」, 行政論叢, 13卷 1號, 1975.
- “The Korean Question in the U.N.,” *Verfassung und Recht in Uebersee* Vol. 8, No.3, 1975.
- “Unification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ia Quarterly*, No.2, 1976.
- 吳 錫 泓**
- 「美軍政期の 우리나라 人事行政制度」, 行政論叢, 3卷 1號, 1965.
- “A Control System for the Enforcement of Ad. Responsibility,” 行政論叢, 7卷 2號 1969.
-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 行政學報 3號, 1969.

“The Concept of Control over P.B.” 行政學報, 4號, 1970.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s Development Action Instruments”, 行政論叢, 8卷 2號, 1971.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行政論叢, 9卷 1號 1971.

“A Conceptual Scheme for the Study of Separate Monitoring Agencies in the Government,” 서울大論文集, 17集, 1971.

「發展計劃機構小考」, 行政論叢, 11卷 1號, 1973.

「保健管理小考」, 行政論叢, 11卷 2號, 1973.

「行政現象研究의 傾向變遷」, 서울大論文集 19集, 1974.

「組織의 目的」, 行政論叢 12卷 1號, 1975.

「行政能力의 評價」, 行政論叢 14卷 1號, 1976.

姜 言 澤

「交通部長官의 大韓航空公社에 對한 統制」, 行政論叢, 3卷 1號, 1965.

“Structure of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行政論叢, 7卷 2號 1969.

「計劃豫算制度의 構造分析」, 行政學報 3號, 1969.

“A Prologue to a Survey of the Study of Public Ad. in Korea,” 行政論叢 8卷 1號 1970

“Dimensions of Rationality and PPBS,” 行政論叢 8卷 2號, 1971.

「行政學研究에 있어서의 問題選定의 基準」, 行政論叢, 9卷 1號, 1971.

“PPBS in Practice,” 行政論叢, 9卷 2, 1971.

「韓國行政學史序說」, 政治學會報 4集, 1971.

「政治學研究에 있어서의 理論單位와 方法論의 個人主義」, 行政論叢 10卷 1號, 1973.

「科學的說明과 豫測」, 行政論叢, 11卷 1號, 1973.

「시 마을事業의 計劃과 執行」 行政論叢 11卷 2號, 1973.

「한국國會의 豫算審議過程」, 行政論叢, 12卷 1號 1974.

「韓國公務員의 豫算節次上의 行態」, 行政論叢, 13卷 1號, 1975.

「政治學研究에 있어서의 概念定義 및 概念形成」, 行政論叢, 13卷 2號, 1975.

金 光 雄

「政治·行政의 不均衡關係와 國家發展」, 政治學報 5卷, 1971.

「定量分析方法에 依한 後進國發展의 比較研究」, 行政論叢, 10卷 1號, 1972.

“Dimension Analysis of Development,” 行政論叢 10卷 2號, 1972.

「發展行政과 體制分析」, 行政學報, 6卷, 1972.

「南北韓官僚制의 比較研究」, 1972.

「科學的 理論과 操作的 行爲」, 行政論叢, 11卷 1號, 1973.

「새마을 事業의 生産性과 그 影響要因에 관한 實證的 研究」, 行政論叢, 11卷 2號, 1973.

「社會科學 研究方法論의 科學性論攷」, 行政論叢, 12卷 1號, 1974.

「社會科學과 環境」, 環境論叢, 創刊號, 1974.

「人口政策의 效率의 執行」, 發展政策研究, 3卷, 1975.

「後期行息主義論：實證主義, 歷史主義 및 現象學的方法論」, 行政論叢, 13卷 2號, 1975.

“Model Curriculum for Family Planning Administrators,”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25, 1976, 6.

「組織行息과 組織成果간의 因果關係模型定立에 관한 研究」, 行政論叢, 14卷1號, 1976.

盧化俊

「韓國工業化過程에 있어서 Elite의 役割」, 行政論叢, 7卷, 1969.

“The Development Process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行政論叢, 13卷, 1975.

「大學管理體制의 디자인과 PPBS」, 行政論叢, 13卷, 1975, 12.

「多次元的 結果를 가진 計劃問題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評價」, 行政論叢, 14卷 1976.

<附錄 I>

教授들의 國際會議 參加現況

朴東新

1961 EROPA總會(東京)

1963 美國行政學會 CACT 세미나(브루밍톤)

1968 日本行政學會(東京)

1968 第一次 發展途上國家의 行政研究세미나(마닐라)

1973 U. N. D. P.

1974 A. C. D. A.

1975 A. A. D. R. I. T.

金雲環

1968 韓·日國際學術大會(東京)

1968 第14次 I. I. A. S. (Dublin, Ireland)

1971 E. R. O. P. A (Manila)

1971 I. I. A. S. 15次總會 (Rome)

1972 유고國際學術大會 (Belgrade)

- 1974 美國政治學會 및 在美韓國政治學者會議 (Chicago)
 1975 A. A. S. (San Francisco)
 1976 韓·日關係세미나 (東京)

俞 震

- 1961 필리핀豫算委員會 (Manila)
 1962 E. R. O. P. A 總會 (東京)
 1973 美國 F. E. I.
 1975 A. C. D. A. (말레이지아)
 1975 公企業關係 Workshop (말레이지아)

趙 錫 俊

- 1962 E. R. O. P. A 都市行政問題세미나
 1968 D. A. G. 「革新과 改革」에 관한 세미나 (방콕)
 1968 E. R. O. P. A. (쿠알라 룸푸르)
 1970 E. C. A. F. E. (태국)
 1973 美國東西文化 Center

金 海 東

- 1964 第2次 E. R. O. P. A. 總會

安 海 均

- 1972 미국 行政學會 (ASPA)
 1976 美國연방政府 社會福祉行政研究

崔 鍾 起

- 1966 필리핀 亞細亞問題研究所 세미나
 1972 國際學術會議 (東京)
 1972 國際戰略問題研究所總會(캐나다)
 1973 國際學術會議 (서독)

姜 信 澤

- 1971 國際學術會議 (방콕)
 1971 E. R. O. P. A. Workshop (방콕)
 1973 國際學術會議 (방콕)
 1973 家族計劃의 行政의 側面에 관한 세미나 (Manila, Hongkong, Tokyo, Bangkok)
 1975 國際學術會議 (Manila)
 1975 國際學術會議 (Singapore)

吳 錫 泓

- 1971 發展行政學 (Hong Kong)
 1974 農業發展에 관한會議 (Manila)

金光雄

- 1973 E. C. A. P. E. 人口研究委員會 (Bangkok)
 1975 國際學術會議 Workshop (말레이시아)
 1975 家族計劃事業管理行政會議 (말레이시아)
 1976 亞細亞發展行政 (家族計劃行政) (말레이시아)

〈附錄 6〉

教授들의學會參與

朴東維

- 韓國行政學會 (前會長)
 韓國政治學會 (理事)
 行政改革委員會 (非常任委員)
 行動科學研究所 (副會長)
 韓國社會科學協議會 (副會長)

金雲泰

- 韓國政治學會 (前會長)
 韓國行政學會 (前會長)
 美國政治學會
 E. R. O. P. A (東北亞細亞國際行政學會)
 (前副議長)
 世界行政學會 (I. I. A. S) 運營委員會 (前委員)
 東洋學會 (A. A. S) 會員
 日本政治學會 會員
 韓國社會科學協議會 理事

俞 秉

- 韓國行政學會 (現會長)
 韓國政治學會 (常任理事)
 美國政治學會 (會員)
 美國行政學會 (會員)

趙錫作

- 韓國行政學會 (理事)
 韓國政治學會 (理事)
 美國行政學會 (會員)
 美國政治學會 (會員)

金海東

- 韓國政治學會 (會員)

韓國行政學會 (會員)

安海均

- 韓國行政學會 (理事)
 韓國政治學會 (會員)
 美國政治學會 (會員)
 美國行政學會 (會員)

崔鍾起

- 韓國國際政治學會 (理事)
 韓國國際法學會 (理事)
 韓國國際問題研究所 (理事長)
 國際平和學會 (會員)
 美國國際關係研究學會 (會員)
 日本國際法學會 (會員)

吳錫泓

- 韓國政治學會 (會員)
 韓國行政學會 (會員)
 美國行政學會 (會員)

姜信澤

- 韓國行政學會 (理事)
 韓國政治學會 (研究委員)

金光雄

- 韓國行政學會 (監事)
 韓國政治學會 (會員)
 美國行政學會 (會員)
 韓國未來學會 (會員)

盧化俊

- 韓國行政學會 (研究委員)
 韓國 OR學會 (理事)